

melomance 4.4(대외1)

멜로망스

Melomance

메타버스 디지털시대의 그들에게
멜로망스한 아날로그 사랑이 시작됐다.

각본·감독 한만택



등장인물

- 혜경** 30대 중후반. 메타버스 게임회사 'SD소프트' 그래픽 디자이너
소문난 원조맛집을 운영하던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얼떨결에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를 맡아 운영하게 된 비운의(?) 커리어우먼
- 현우** 30대 초반. 메타 게임회사 '아인크래프트' 총괄개발자 PM(프로젝트 매니저)
떠나간 옛 애인을 잊지 못하고, 좀 많이 껍딱한 '기억형 인간' 순정남
- 정빈** 30대 초반. 어렵게 성공한 가수 출신의 인기 영화배우
카메라 앞과 뒤의 모습이 철저히 다른, 왕 싸가지 킹 재수 꽃미남 청춘 스타
- 슈렉** 30대 초반. 정빈의 깨복쟁이 친구이자 로드매니저
늘 정빈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만, 그에 대한 우정은 남다른 사나이
액션배우를 꿈꾸는 매니저
- 다준** 12세. 소년 가장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컴퓨터 천재 해커, 초딩 악플러
- 미애** 35세. 사회복지사
젊은 나이에 유산의 상처를 가진, 그래서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다준의 방과 후 학교 선생님. 라면매니아
- 지혜** 30대 초반. SNS방송관련 모바일콘텐츠 PD.
현우의 전여친으로 유명한 맛집콘텐츠를 제작하는, 미식가, 인플루언서
- 대한** 30대 후반. 독특한 행색과 사고를 가진 현우의 멘토이자 최측근
같이 회사를 설립한 운명공동체 같은 선배, 코믹 엽기동영상 매니아

1. 프롤로그 몽타주 / 광주 꽃계장 백반거리 ‘꽃계 문어라면집’

왁자지껄 시끌벅적 원통형 탁자들을 가득메운 손님들로 시끄러운 라면맛집
‘꽃계문어라면’을 맛깔나게 먹으며 먹방을 찍고있는 유튜버(노홍철 톤으로) ‘맛사냥꾼’
다양한 ‘후~후~’ 불며 먹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군침이 절로돈다

맛사냥(오버하며) 여기가 바로 꽃계장 맛집이 골목골목 가득하다는 광주 동곡동에 와있는데여~
오늘은 바로 유명한 꽃계가~!! 아주 특별한 외출을 했다고합니다!!
(짜잔~꽃계를 집어들며) 꽃계가 통으로 한마리, 문어가 썩으로 한마리, 얼큰시원탱탱~
맛이 없을래야 없을수가 없다는데여~(한입 크게먹고는 국물을 냄비째로 들이키며) 커~억
카메라 빠지면 ‘인스타’화면 그 밑으로 댓글들이 쭈욱~달린다. 그 중 하나를 클릭하면

<오늘의 면빨> 인스타 예쁘게 세팅된 라면이 보글보글 예쁘게 끓고있다
미애(35세) 한입 크게 떠서 넣는데, 고개를 갸웃 그맛이 안난다
다시 댓글을 단다 : 저는 왜? 왜 그맛이 안날까여?

맛사냥(한입 더 크게 입에 넣곤, 꽃계를 들어보이며) 이제 요녀석을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달리는 댓글, 클릭하면

정빈(30대초반)의 촬영 현장 속으로 화면 전환되면,
촬영장 한켠에서 ‘맛사냥’의 먹방을보며 군침을 느끼고 있다

정빈(입맛을 다시며) 짜속 겁나 맛있게 먹네, 야, 우린 밥차 언제 오냐?
라고 하는데
갑자기 세트장 입구쪽에서 달려드는 정빈의 열성팬들~
헉, 하는 정빈, 살짝 피하듯 도망가는 정빈
정빈의 댓글: 배고파, 나도 좀 살리도... CUT TO

맛사냥(이번엔 문어를 통째로 들고 물어뜯으며) 쫘득쫘득 탕탕 팡팡~ 이맛을 어찌하시렵니까?

댓글 달린다 <미스터 라면왕> ‘짜속 라면좀 끓이는데~푸 훗’
다시 댓글 <짜가지 헛바닥> ‘이번엔 쫘하네’ 하고 달리는데, 이걸 클릭하면

지혜의 <짜가지 헛바닥> 인스타로 장면 전환되고

원조 떡갈비집, 친구들과 김이 모락모락나는 떡갈비를 계는 감추듯 먹어가며 사진을 찍는데
'#변함없는 #맛이 변했을까바 #개걱정 #걱정따윈 개나줘버려'

맛사냥(팔로워들의 인스타를 들여다 보는듯) 오호, 지금 각자의 먹방들을 하고 계신가요?

맛사냥이 냄비옆의 세트메뉴 꼬마 충무김밥을 입에 가득 요란스럽게 먹다가 싶더니
라면을 냄비째 들어서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킨다. '으~~으' 얼큰한 목넘김이 목젓의 꿈틀되는
소리와 함께 군침의 절정에 달한다. 이에 달리는 댓글

해경의인스타 <오늘도 달린다> 로 넘어가면, 정신없이 AR/ VR 게임을 만들고있는 작업실 풍경

해경 우리도 빨리 이거 마치고 밥먹으러 갑시다아~!!

늦은밤 사무실의 작업하는 모습들 스케치, 업무가 어느덧 정리되어 가는데

해경 (벌떡 일어서며) 자 우리도 다들 마친거지, 자~ 가즈 - 아!

화면전환 -

경쾌한 EDM소리와 함께 건배하고 즐겁고 고기를 굽고 먹는 이미지들, 그리고
클럽DJ의 섹시한 디제잉 모습과 열광하며 춤추는 젊은 영혼들... (F.O)

타이틀 <멜로망스>

(OFF SOUND)띠리리리...띠리리리....(선행되는데)

2. 해경의 원룸 (실내/오전)

경쾌한 EDM 음악 소리와 함께 흥겹게 춤을 추며 건배들을 하는듯,

해경 (흥얼거리며, 꿈결) 고생들해꼬~내일 최종PT만 마치면 투자받는것도 완전 끝이니까,
오늘은 달려, 달.리.자.구! 돌진하라!

취한 몸을 웨이브에 맡긴 채 음악 소리는 더 커지는가 싶는데,
귀를 찢듯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벨소리 '띠리리리~띠리리리~'
전날 입은 채로 잔 듯 잔뜩 구겨진 수트 차림의 해경,
비몽사몽간에 몸을 일으켜 머리맡에 있는 자명종의 알람버튼을 누르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벨소리

잠결에 더듬거리다가 손에 잡히는 핸드폰 통화 버튼이 눌러지며,

혜경 (잠이 덜 깬) 돌진하... 여~보~데요.

남자(필터) (화난-) 뭐야? 이 목소린! 지금까지 자고 있음 어떻게 해?

혜경 (헉, 놀라며) 이...이사님

‘아~차’ 하며 시계를 보는 혜경, 늦었다!

혜경 갑니다. 가요. 지금 바로 가요.

제 할 말만 하고 급하게 핸드폰을 끄고는,

허둥지둥 나갈 채비를 하는 혜경.

3. 지하철역 입구 (실외/오전)

러시아워가 좀 지나서 다소 한산한 지하철역 사거리의 풍경

급했던지 여전히 그 잔뜩 구겨진 수트 차림에, 대충 빗어 묶은 머리를 한 혜경.

에어팟으로 통화를 하며 뛰듯이 걷는데,

혜경 (짜증내며) 아이 참~ 분명 거기 넣어놨는데 그게 어디 가? 잘 좀 찾아봐.

찾았어? 그래, 그거같은데 바로 PT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 회의실에 세팅해놔.

몸은 급한데 발걸음이 따라가지 못하지만 다급함에

혜경 최대한 날라갈테니까. 그래~

통화를 거의 끝내가는데, 갑자기 ‘배민’ 배달 오토바이가 혜경을 향해 달려오고,

깜짝 놀랐지만 간신히 잘 피하는가 싶었는데, 살짝 코를 가격당하면서 머리가 휘청 돌아간다

머리를 추스리며 다시 한발 내딛는 데,

그때, 헛 갑자기-

뒷쪽에서 승~하고 달려오는 키보드에 아차차 어깨가 걸리며 휘청 넘어진다

그 충격으로 귀에서 아이팟이 날듯이 빠지고, 슬로모션으로 그걸 잡으려고 몸부림 치지만

저멀리 날아가서 배수구에 빠져버리는 에어팟. 오마이갓~

‘이런 쉬빠~’하는데, 이미 저만치 달아나 버린 키보드.

마음같아서는 뛰어가서 잡고 싶지만, 우선 회사가 급하다.

벌떡 일어나 발을 내딛는데... 발을 뺨듯, 아~ 존나 아프다

혜경,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잔뜩 인상을 구긴 채 서둘러 뛰기 시작한다

저멀리 역사로 들어오는 지하철 소리가 들리고, 혜경 속도를 내는데

4. 현우의 게임회사 사무실 (실내/오전)

여기저기 정돈되지 않은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그래픽 작업용 컴퓨터가 가득 들어차 있는 어수선한 사무실 내부

벽에 붙어 있는 게임 포스터들이 여기가 게임회사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우

소파에서 앉아서 참선하듯 즐기고있던 독특한 스타일의 **대한(30대 후반)**, 인기척에 깨서는

대한 (눈감은채로) 왔...나?

현우, 힐끗 쳐다보곤 자신의 책상으로 가 노트북을 켜며

현우 웬만하면 잠은 집에 가서 자라. 형, 그러다 병나.

대한 (몸을 일으키며) 언젠 사무실 지키라고 해놓고 딴소린...

근데, 어젠 뭐 했어? 하루 종일 핸드폰도 꺼놓고?

현우 여기저기 좀 다녔어. 저녁에 보니까 배터리가 나갔더라구.

왜 무슨 일 있었어?

대한 저기... 민석이 있잖아. 'SD소프트' 이사로 있는...

개가 니랑 통화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했더라구. 연락 좀 달래.

별관심 없이듣다가 먼가 생각이 난 듯, 핸드폰을 꺼내 사진 폴더를 뒤적이는 현우

현우 그래? 무슨 일이라? 난 그 선배 연락처도 모르는데...

대한 (자신의 책상으로 가 포스트잇을 들고 오며) 여기 적어놨어.

노트북 부팅이 되자마자,

<이세계 여자친구>라는 자신의 인스타에 접속하는 현우.

그런 현우의 모습을 한심한 듯 쳐다보며,

대한 거...거, 청승 좀 그만 떨어. 그런다고 떠난 버스가 돌아오냐?

피식~ 웃으며 모니터를 응시하는 현우.

모니터엔 'ep32 #프로포즈이벤트 ep31 #전남대 핫플 #그녀를위한 카페' 라는 제목 아래,

‘홍차왕자’ 라는 영국풍 정원이 아름다운 한 카페의 사진들이 담긴 포스팅이 보인다.
그 중 ‘홍차왕자’의 내부 사진 하나가 그대로 현실화 되며,

5. 과거 / 홍차왕자 (실내/ 낮)

인스타 속 ‘홍차왕자’의 모습 그대로... 텅 빈 고급스런 카페
현우, 혼자 긴장한 얼굴로 테이블 앞에 앉아 있다.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혜

지혜 (현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앉으며) 점심시간 반이나 지났어
왜 꼭 여기서 보재?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고, 인상 찌푸리는 지혜.
갑자기 달달한 음악이 흐르며 아르바이트생이 초가 가득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가져온다.

지혜 너... 혹시, 여기 빌렸니?
현우 그동안 귀찮게 해서 미안해. 내 진심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니가 그렇게 느낀 것 같아. 이제 너한테 당당히 말할 용기가 나
지혜 (케이크를 턱짓으로 가리키는-) 여기 반지 들었니?
현우 (헉~ 놀라는) 응응...
지혜 파라.

손가락으로 파헤쳐 반지를 찾아내는 현우
물로 잘 헹귀 지혜에게 건넨다.

현우 지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책임질게, 그날 밤...

표정 제대로 굳은 지혜
테이블 주위에서 대기 중인 아르바이트생들을 쬐려본다.

지혜 내가 이 반지 끼면 재네가 뭐 막 터트리니?

안 그래도 샴페인과 폭죽을 준비 중인 아르바이트생들(멈칫하는)

지혜 왜? 음악 연주는 없어?

때마침 악기를 들고, 나오려던 연주자들(화들짝 멈칫)
나오지 말라고 눈치 보내는 현우.

지혜 (벌떡 일어나) 뭐 반전이 있어야지. 삼류 드라마 고대로네, 고대로...
그리고... (정말로 화난 눈빛이다) 누가 너보고 나 책임지랬니?

하곤 뒤도 안돌아보고 나가버린다.
지혜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현우.
대기 중이던 아르바이트생 하나, 얼떨결에 폭죽을 ‘평~’ 터트리고 만다.
병찢 연주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

(OFF SOUND) : 지하철 역사에 들어오는소리

6. 지하철 안 (실내/오전)

역사로 들어오는 지하철, 사람들이 내리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한발 늦은듯
계단을 뛰다시피 지하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혜경
무서운 스피드의 혜경. 문 닫히기 직전, 몸을 날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는데,
먼가, 이상하다 분명 몸은 통과했는데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혜경
슬쩍 뒤돌아보니 질끈 동여맨 포니테일 머리가 핸드백에 엉켜서,
출입문에 끼인 채 매달려 있는데, 대략 난감하다
혜경, 아무일 없는 척, 조신하게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울리는 요란한 벨소리
그녀를 이제 발견한 듯, 승객들의 힐끗힐끗 시선들, 그리고 수군수군 웃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비틀며 빼려고 해도, 문틈에서 빠지지 않는 핸드백과 엉켜서 문틈에 끼어있는 머리채
(설상가상으로 코피까지 주르-룩) 그 모습이 좀 웃기다.

혜경 (작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그러다 놀란 듯 갑자기 큰소리로) 뭐? ~머.라.고?

승객들, 일제히 그 모습을 짜증 반,웃음 반으로 쳐다보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혜경

혜경 그게 아니라니... 머, 지금.. 지금 장난해?

이때, 옆칸에서 바지만 태권도복을 입은 할아버지(지하철 빌런1-유튜브에서 유명한빌런1)가

태권할배 으야얏~따, 야얏~ 따얏

하시면서 발차기를 하면서 넘어오시고(혼자 겁나 진지하게 액션 중)

반대편 쪽에서는 단소할아버지(지하철 빌런2-유튜브에서 유명한빌런2)가

가만히 서있는 승객들에게 단소를 들이대며 찌르고 칠듯이 시비를 걸며 걸어오는데

단소할배 “너도 까볼래? 카악~그냥 간수를 째악~뿔아버려~씨발 하악!!”(술취한듯, 계속 시비쪼다)

그런 상황안에서도 급한 통화를 하는 혜경, 본인의 모습이 창피하지만

그 두 빌런들을 슬쩍슬쩍 찌려 보며 통화를 하는 혜경

그때,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가 만나듯,

서로 눈이 딱 마주치는 빌런들, 서로를 한참 탐색하 듯 노려보더니

(아직 문에 끼어있는 혜경에게는 힐끗 눈길한번 주더니, 무관심한 빌런들)

빌런1 (빌런2를 향해, 헛발 앞차기하며) 너는 모여? 너도 따악~ 한방에 따악 뒤져볼터?

빌런2 (빌런1를 향해, 단소로 찌는척) 너는 모여?, 이걸 확,찍어버려~어디서온 콩각쟁이같은게~

하면서 서로 다양한 욕설과 기교를 부리며 아웅다웅하는게 아수라장 같은데,

온통 지하철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린다.

혜경 (속삭이듯) 저기여, 할아버지들 좀 조용히 해주셔요~했다가, 그들이 계속 싸우고있자

혜경 (버럭) 아-악, 쯤 가만히 계셔요 시끄러워 죽겠네.

하고 소리치는데, (앤 머지?) 갑자기 어이없어하는 빌런1,2

그리고 더 황당한 승객들. 그러나 좌불안석 아랑곳 않고 통화를 하는 혜경

혜경 (더 큰 소리로) 그렇다니까. 내가 그걸 왜 가져와?

잠시 조용하던 빌런 1,2들이 이번엔, 혜경을 상대로 시비를 걸며 싸움을 걸기 시작하고,

혜경 (발길질을 막으며)야 야, 잔말 말고 다시 찾아봐. 분명 거기 넣어뒀어

아이 씨~ 머라고? 안 들려? 정말 미치겠네~!! 여보세여?여보세여?(끓인다)

뛰다가 넘어진 게 아프기도 하고, 머리 킁 게 쪽팔리기도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혜경,

승객들의 시선속엔, 그냥 빌런들과 함께, 똑같이 미친X처럼 보이는데,
그때, 다시 울리는 벨소리에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힘겹게 겨우겨우 핸드폰을 주워서 통화버튼을 누르는데,
전화기의 목소리는 안들리지만 갑자기 입술이 떨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굳어지는 혜경
혼란한 지하철 안, 그 와중에 어수선한 승객들 틈 사이로
건너편 좌석에 앉은 누군가의 핸드폰으로 그 모습이 찍히고 있다
(OFF SOUND)삐~삐~삐~삐삐 삐삐(응급실 심장박동기 소리)

7. 병원 응급실 (실내/오전)

많은 응급환자들로 정신없고 소란스러운 응급실
커튼이 쳐진 병상들을 두리번거리며 급하게 들어오는 혜경
저쪽에서 사람들 우는 소리 들리고,
'설마 아니겠지' 하는 얼굴로 다가가는 혜경
울음소리 점점 커지고
혜경, 커튼을 확 열어 젖힌다 (OFF SOUND) 땡~땡~

8. 철거촌의 낡은 교회 (실내/오후)

(O.S)'땡~땡~' 종소리 울려 퍼지며 보이는 낡은 십자가
작고 허름한 교회 예배당 안
어두컴컴한 구석 자리에서 젊은 남녀가 진한 스킨십을 벌이고 있다.
경건해야 할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불경스런 모습
누군가 이들의 연애질을 훑쳐보고 있는 듯한 긴장된 흔들리는 시선의 카메라

9. 재개발 철거촌 (실외/오후)

주민들이 빠져나간 폐가들로 황량한 동네
한편에 영화 촬영 준비에 바쁜 스태프들의 모습 보인다.
시침 똑 떼고 팀에 합류하는 줌 전의 교회 커플, 정빈과 아란(23)
아란은 몰래 눈을 찡긋거리며 정빈을 살피지만, 정빈은 눈길도 안 준다.
생트집 잡듯이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을 갈구는 정빈

정빈 이거 말구, 저번에 홈쇼핑 인터뷰 따주고 받은 거, 그 파우더 쓰라니까.

정빈, 아란의 목에 난 키스 마크를 보고 재빨리 카톡을 보낸다.



우리 얘기~ 목에 도장 찍혔다. 언능 가려라 ^^

INS >> 아까 그 교회 예배당 구석에, 카톡 도착을 알리는 핸드폰이 반짝거린다!

10.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실내/해질녘)

장지에서 돌아온 친지들, 둘러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시끌시끌~사투리에, 연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없는이빨로) 떡갈비와 등뼈를 뜯는 모습...좀 웃프다!

혜경의 손을 잡고 한탄을 하는 친척 할머니들

친척할매1 가가 니 혼자 남겨두고 워찌케 요단강을 건넌다냐. 아따 거시기 하계이~

친척할매2 그리 아팠으면 큰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았으면 조았을걸.

친척할매1 에고,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워찌케 이 큰 가게 살림을 맡아한다?

친척할매1 왜 못 혀. (혜경의 손을 억세게 주물럭거리며) 그 손맛이 어디 갔겠어?

우리집이 떡갈비 원조인디, 여 다 배어 있겠지.

통통 부은 눈을 한 혜경,

친척 할머니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다시 설움이 북받쳐 엉엉 눈물을 흘린다.

11. 복지관 교실 (실내/오후)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미애

보면, (프롤로그에 보였던) <미스터 라면왕> 인스타와 군침도는 요리들

이때, 사회복지과장 노크 하고 문을 열며,

사회복지과장 저기, 박선생

재빨리 인스타 화면을 닫고 사회복지과장을 쳐다보는 미애

사회복지과장 지난 명절 때 선물로 들어온 떡이랑 김치말이야.

방과 후 학교 애들 중에 못 받은 애들 있거든. 오늘 내로 다 돌려야 돼.

미애 (살짝 김새는 표정 감추며) 네... 그럴게요.

12. 재개발 철거촌 (실외/해질녘)

양손에 짐을 들고 골목을 기웃거리는 미애
저 멀리 ‘태양사진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구식 사진관이 보인다.

13. 태양사진관 (실내/해질녘)

미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두컴컴한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실내
먼저 낀 사진액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누렇게 물든 벽지와 촌스런 의자 등이 보인다.
두리번거리던 미애, 헉~ 하고 놀라면
(무섭게)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선 **다준(12)**, 미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사진관과 연결된 허름한 살림집 작은 방엔
할아버지가 멍하니 눈뜬 시체처럼 누워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는 미애에게 고갯짓으로 할아버지께 인사하라는 시늉을 하는 다준
말 잘 듣는 아이처럼 고분고분 인사하는 미애.

할아버지 (뜬금없이) 걸레 같은 년, 이 걸레 같은 년
놀라는 미애, 걱정 어린 눈으로 다준을 보면,
다준 (별일 아니라는 듯) 엄마한테 하는 소리예요.
미애 (주위를 둘러보며) 엄...마?

하지만 여기에 ‘년’이라고 부를 만한 이는 자신밖에 없다!
(끄응~흠) 떨떠름해 하는 미애. (시간 경과)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는 양은 냄비, 그 옆에 놓여있는 라면 봉지
구식 커피잔에 암전하게 커피를 타 온 다준, 미애 앞에 놓는다.

미애 고마워. 선생님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아까 가져온 김치랑 먹어봐. 복지관 어머니회 솜씨야.

라면을 끓이는 다준
양은 냄비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라면 (시간 경과)
옆에서 커피를 흘쩍이며 다준이 먹는 라면을 힐끔힐끔 보는 미애.
정말로... 정말로 맛있게 보인다!

미애 (꿀꺽 침을 삼키곤 아무 사진을 보고) 다준이 부모님이시니? (영혼없이) 님았다.
다준 (대뜸) 제 신상 카드 안 읽으셨어요?

두분 다 집 나갔는데 사진은 왜 붙여놨어요?

머쓱한 미애, 시선이 자꾸만 다준의 라면으로 쏠린다.

이미 미애의 눈빛을 감지한 다준,

김치를 아드득~오드득 씹으며, 마치 홈쇼핑 모델처럼 참 먹고 싶게 먹는다.

다준 혹시 배고프신 건 아니죠?

미애 (혹시 드디어) 응?

다준 라면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면발이 쪼르륵~호로록~ 다준의 입술로 빨려 들어간다.

부르르 떨리는 미애.

미애 (못 참겠다) 선생님은 다준이 방해 그만하고 이만 갈게.

다준 다른 선생님들은 와서 얘기도 많이 해주고,

쌀하고 라면도 사두고 가고 그러던데...

미애 (기다렸던 것처럼) 그럼 나도 끓여줄 거야?

다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젓가락 집어 내밀며) 오늘은 맛배기...

치사하지만... 그렇다고 거부할 인내심은 없는 미애

다준이 내민 라면을 입에 넣는데... 맛이 환상 그 자체다!

그러나 그걸로 진짜 끝...! 다시 혼자만 먹는 다준

미애 다준이 라면 잘 끓이네. 나뉘는데...

언제 우리 대결 한번 할까?

다준 (무시하고) 어? 찬밥이 한 숟가락밖에 없네.

국물에 찬밥을 말아먹는 다준, 이제 아주 더 노골적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어 치우는 다준

이미 그 맛을 알아버린 미애, 더 죽을 맛이다.

14.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실내/저녁)

친지들, 모두 돌아가고, 잔뜩 어질러진 식당

뒷정리를 하던 나주댁과 순천댁 여수댁

놀란 표정을 지으며 혜경을 쳐다본다.

나주댁 식당을... 내놓겠다고?

혜경 네

순천댁 (정색하며) 아따 머시여? 누구 맘대로?

혜경 왜...요? 안 돼요?

여수댁 안 되지, 그럼! 이렇게 막 거시기 그만두면 거시기 우린 어떡하냐고잉?

그리고, 며칠 뒤에 방송국에서 촬영도 오기로 했당께.

순천댁 (어이없어하며) 아이 참... 거, 거시기 말 같잖은 소리 좀 하지 마셔.

여기서 거시기 방송국이 왜 나온당께?

여수댁 왜? 맞잖혀.

순천댁 (여수댁을 무시하고) 혜경이 너두 내 사정 알잖아.

빌어먹을 우리 집에서 돈 버는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

요새 같이 경기도 어려운 때, 나 같은 아줌마한테 일 시켜줄 데도 없고,

여기 문 닫으면 우리 가족 모두 굶어죽으라는 소린데... 안 돼. 절대로안되는구먼...!

(나주댁을 쳐다보며) 형님, 말 좀 해보시우. 애 좀 말려봐.

나주댁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 식당, 니 엄마가 평생을 일궈놓은 거야.

어떻게 일군 비법이고 원조맛인데~ 이대로 관두면, 니 엄마 제대로 눈도 못 감을 거다.

혜경 (울컥하는-) 그렇긴 한데요...저도, 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맡아서 해요? 그리구 저, 떡갈비 먹을 줄은 알았지

할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순천댁 누가 너더러 하래?

(나주댁을 가리키며) 여기... 이 형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여기 음식 맛... 사실 다 이 형님 손에서 나온 거야. 안 그래요, 형님?

여수댁 에이~대충 그렇긴 한데... 그건 아니다. 어디 사장님 손맛 따라 갈려구...

순천댁 (여수댁을 췌려보며) 도대체 이 아지마는 누구 편이야?

여수댁 여기 니 편, 내 편이 어딴어? 말은 바로 하잔 거지.

나주댁 (웃으며) 맞아. 사장님 손맛 따라갈 려면 멀었지! 혜경아, 어쨌든...

지금 상태로 내놔 봤자 누구든 거저먹으려 들 테고, 남는 게 없을 거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보자. 까짓 거...

매상이 얼추 사장님 살아 계실 때만큼이라도 유지되면,

다들 명당자리라고 나서겠지. 권리금도 제법 챙길 수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혜경...

15. 미애의 아파트 (실내/저녁)

신발을 벗어 던지며 급하게 들어오는 미애

주방으로 직행해

다준이 하던 대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다 (시간 경과)

드디어 완성된 라면

향기를 음미한 뒤, 젓가락으로 한 입을 먹는데... 어라, 도무지 이 맛이 그 맛이 아니다!

탁하고 놓는 젓가락 (시간 경과)

식탁에 앉아 인스타에 댓글을 올리는 미애

< **미스터 라면왕** > 인스타에 글을 남기는



입맛가출이모 : 라면왕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 버금갈 만한 진짜 라면박사님을 찾았어요!!!

16. 혜경의 게임회사 복도 (실내/오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리는 현우

제대로 고급진 인테리어의 게임회사 'SD소프트(SD Soft)'

현우의 회사와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17. 동 이사실 (실내/오전)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놓고 나가는 여직원

현우, 전망 좋은 이사실 소파에 **송이사(36)**와 마주 보고 앉아 있다.

현우 (송 이사를 쳐다보며) 선배, 제안은 고마운데, 지금 당장은 좀...

송이사 왜?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현우 아니, 그런 건 아니구...

지훈이 형 좀 더 기다려야 할 거 같아서요.

송이사 아서라~ 지훈이 그 새끼... 절대 안 돌아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1년 전부터 가족들 미리 미국 보내놓고 준비했었다드만

현우 누가 그래요?

송이사 이 바닥이 워낙 좁잖냐. 회사 돈도 싸그리 빼갔대매

십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아주 걱정하고 날랐더만!

현우 아니요. 꼭 돌아올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부 손가락질해도 전 지훈이 형 믿어요.

송이사 (한심한 듯) 그래, 좋아... 내 더 이상 강요는 안 할게

근데,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니 장래를 위해서...그리고, 대한이형도 살아야지 의리도 좋다만, 사람이 좀 영악해질 필요도 있는 법이다.

18. 동 사무실 (실내/오전)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오는 혜경

하지만 동료 직원들, 혜경 보기를 왠지 꺼끄러워하며 시선들을 피한다.

혜경 에이~ 왜들 이래? (괜히 오버하며)나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 자신의 책상이 깨끗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19. 다시, 이사실 (실내/오전)

다짜고짜 이사실 문을 열고 들이닥치는 혜경

혜경 뭐예요?

의아한 듯 혜경을 쳐다보는 현우

송 이사, 예상했다는 듯 태연하게 일어서며

송이사 나가서 얘기 하지?

혜경 뭐냐니까요? 지금 절 자르신 거예요? 왜요?

송이사 글썄... 손님 계시니까 나가서 얘기하자니까.

현우야, 잠시만

현우에게 미안하단 표정을 짓곤 혜경을 밀치며 나가는 송 이사

커피를 마시며 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 현우의 얼굴 위로 들리는

송이사(O.S) 이팀장, 니가 그렇게 잠적하는 바람에 100억짜리 신규 프로젝트가

날아 갔어. 거기에 따른책임은 져야지. 안 그래?

20. 동 이사실 앞 (실내/오전)

언쟁을 벌이고 있는 혜경과 송이사

혜경 잠적이라뇨? 엄마가...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사님 같으면 정신이 있으셨겠어요?

송이사 이팀장 사정은 나중에 들어 알았어. 그건 미안해.

경향이 없어서 가보지도 못했네. 그래도 공과 사는 엄연히...

혜경 (말 끊으며) 됐구요. 이거 노동법 위반이에요.

절 이렇게 자르실 수 없다구요.

송이사 이봐. 어린애도 아니고 이러지 말자, 우리...

혜경 이사님, 저 마음에 안 들죠?

원래부터 저 짜를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송이사 그건 이팀장 생각이지.

혜경 (눈물 글썽인다) 정말... 말씀 섭섭하게 하신다. 그...그래요?

송이사 (아랑곳 않고 비열한 표정을 지으며) 내 추천서 잘 써줄게. 게임회사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네 실력 알아주는 데가 있을 거야.

혜경 (끝내 눈물 떨구며) 하~진짜...됐어요, 그만둬도 내가 그만둬요. 씨발~

문을 광 닫고 나가버리는 혜경

21. 정빈의 오피스텔 (실내/오후)

꽃미남 대표 청춘스타 이정빈의 인스타 < 이정빈의 '연애탐구일지' >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신의 사진 아래 팬들에게 글을 남기는 정빈



#포스터 촬영끝 #명품사진 #작가선생님 #넘떨림
#얼른 #우리포스터 #보여주고싶다 #비니들 보고싶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손에서 카메라, 모니터 쪽으로 올라가면

모니터에 비치는 얼굴, 매니저 슈렉이다!

자기가 정빈이 된 양 뿌듯하게 인스타 관리를 하는 슈렉

마냥 흐뭇해하다 수상한 댓글을 발견하는데...



오늘의 면빨 : 10월3일 오후5시 하늘교회, 누구랑 있었을까?

‘어? 이건 머지? 나도 모르는 일인데...?’ 의아한 표정을 짓는 슈렉

22. 정빈의 암체행각 몽타주

식당 '막동이회관' (실내/저녁) >>

식당 주인과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는 정빈...

옆에서 슈렉이 대신 '정말 맛있어요. 꽃등심이 살살 녹아요' 정도의 글과 정빈의 사인을

남긴다. 슈렉이 쓴 자신의 사인을 흘깃 보는 정빈.

정빈 (비아냥) 어째 잘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아주.

한 백 장씩 해놔. 하나씩 하지 말고...

무시당한 슈렉

정빈이 알뜰게 쪽~ 나가고 나면 남은 일행들이 참으라는 듯 슈렉의 어깨를 쳐준다.

액세서리행사장 (실내/저녁) >>

액세서리 브랜드 런칭 행사장

홍보용 사진 몇 장 찍어주고, 선물 가방만 왕창 챙기는 정빈.

슈렉이 그 짐을 혼자 다 든다.

뷰티 마사지샵 (실내/오후) >>

정빈이 전속 모델로 있는 화장품 회사의 뷰티 마사지샵

벽에 걸린 자신의 포스터 아래서 분홍 가운을 입고 마사지 중인 정빈.

핸드폰이 울린다.

정빈 (자세와 다르게 목소리는 매우 공손한) 아~ 김 PD님!

예?! 아니, 싫다뇨~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거죠. 하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태도 확~ 바뀌는,

정빈 아~ 씨발 더러워서... 내 이런 좆같은 PD년 똥꾸녕이나 빨고 있으니...

이내 다시 핸드폰 울린다 슈렉이다!

정빈 야, 내가 처 먹는 프로는 안 한다고 했지?

근데 김 PD 그뻐한테 왜 전화가 계속 오는데... (잠시) 뭐 하늘교회?

(급표정 굳어지는) 교회에서 뭘 하긴... 기도했지. (듣다가) 뭐? 너 미쳤어?

화면 반으로 갈라지며 슈렉, 등장한다.

슈렉 진짜 앞에서 본 것처럼 줄라 디테일하게 써놨다니까.

정빈 뭘 소리야, 새까~ 내가 어디 흘러고 다니는 거 봤어?

슈렉 너 요즘 몸 사려야 돼. 이번에도 SNS에 터지면 다 넌 줄 알아~~

우리 광고재계약 얼마 안 남았단 말야.

정빈 알았어. 이 선비 쉼이야~ 아, 그리고 내 밍크코트 좀 맡겨놔.

명품 전문에다가 해. 니네 동네 그지같은 세탁소 말고... (끊는)

정빈 화면 사라지고 슈렉만 남는.

정빈의 밍크코트를 집어 드는 슈렉... (씨블) 기분 정말 더럽다.

23. 혜경의 오피스텔(실내/해질녘~저녁)

화면 가득

증명사진과 함께 ‘SD소프트, 디자인팀장 이혜경’ 이라 인쇄된 ID카드!

그 위로 똑똑 떨어지는 눈물방울

보면, ID카드를 손에 쥔 채 침대에 걸터앉아 영영 소리 내어 울고 있는 혜경

모든 것이 서럽다 (시간 경과)

전등스위치에 손을대고 아쉬운 눈으로 원룸을 둘러보는 혜경

옆엔 대형 여행 가방(혜경 인스타 #여행 #떠나요 써있고)이 세워져있다.

오랫동안 비울 모양인 듯 깔끔하게 정돈되어있는 실내

한숨을 내쉬며 스위치를 끄는 혜경 (F.O)

24.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실내외/아침~저녁)

갈빗살이 다져지고, 가마솥가득 돼지등뼈가 끓고있고

장사가 시작되는 원조떡갈비집

다지고 썰고 굽고 정신없이 장사 준비를 하는 나주댁과 아줌마들

이때, 형클어진 머리에 눈곱 낀 채로 하품하며 나오는 혜경

혜경 수고들 많으시네요.

순천댁 (어이없어하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빨랑 씻고 와서 좀 거들어.

혜경 (배시시 웃으며) 에이~ 저, 사장이잖아요.

순천댁 (비꼬듯) 그러셔? 그럼 어여 들어가 쉬세요. 사장님 (시간 경과)

<점심시간>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면,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실내

혜경이 우왕좌왕~ 뜨거운 불에 굽기도하고 음식들을 서빙도 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아줌마’하며 혜경을 부르는 소리들, 뻘치지만 열심히 해본다

그러다 결국, 발이 엉키며 반찬들을 우장창 쏟는다
인상을 찌푸리며 혜경을 보는 순천덕, 여수댁 (시간 경과)

늦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나주댁과 아줌마들
주방에서 혼자 인스턴트식품을 데워 나오는 혜경.
밥을 먹다 말고 혜경을 쳐다보는 나주댁과 아줌마들
아랑곳 않고 잘 먹는 혜경
그러다 반찬에 젓가락을 대자, 획~하고 반찬 그릇을 가져가는 순천덕 (시간 경과)

<저녁시간>

다시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원조떡갈비
이번에는 밖에서 주차요원을 하고있는 혜경
근데 이 역시 처음 하는 일인 듯, 우왕좌왕하는 모습 역력하고
결국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이 뒤엉켜 ‘뽕~뽕~’ 요란한 클락션 소리들을 낸다
울상을 짓는 혜경 (시간 경과)

안이 짝 찬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킁킁대고 들고 나오는 혜경
특하고 터짐며 구멍 뚫리는 밧... 국물이 줄줄 흘러나온다.
(주저앉아 허공의 향하여) “으아아~” 하고 소리친다.

25. 복지관 교실 (실내/오후)

비장한 각오로 테이블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2개를 세팅하는 미애
그리고, 노란색 양은냄비를 하나씩 놓는다.
가방에서 비장의 무기인 소스(라면스프)가 든 유리병을 꺼내 놓고
(대결 준비끝)손가락을 뿌드득하며, 씨익~ 웃는 미애
그러나, 반대편에는 책상에는 여유있게 앉아서 즐고 있는 다준
이때, 미애의 핸드폰이 울린다.
잠에서 깨는 다준

미애 여보세요? 네 맞는데여, 누구세요? 네?

(다준에게 전화기를 건네며) PC방 사장님이라.

다준 (받는) 예... (사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미애가 들으라는 듯이) 지금 별로 중요한 일도 없어요 (끊고)

(미애를 말뚱히 보며) 이 시간엔 거의 여기 있어서, 선생님 번호 가르쳐줬어요. 괜찮죠?

미애 (싫다고하기도 그렇고) 뭐... 그래, 그럼...시작하까?

다준 죄송한데 오늘 하기로한 승부는 다음으로 미뤄요. 급한 일정이 생겼거든요

멍하니 다준이 가방을 메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서 있는 미애.

26. PC방 (실내/저녁)

진지하게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빠르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움직이는 혜경 보면, 진눈깨비 휘날리는 들판 위에서 양증맞은 캐릭터들이 각종 무기들로 전투를 벌이는, 일명 ‘아이스 스톰(ice storm)’ 게임을 하고 있다. PC방 사장이 급하게 나가며 다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오늘도 대타 알바가 된 다준. 걸레와 쟁반을 들고 PC방을 한 바퀴 돌다, 게임을 하고 있는 혜경을 본다.

다준 안녕하세요.

혜경 (다준을 힐끔 보고 원위치-) 또 대타구나?

다준 아줌마도 그 게임 좋아해요?

혜경 (화들짝 놀라며) 애가, 애가... 누구 혼사길 막을 일 있어? 아줌마라니...!!

다준 누가 그 나이 먹도록 시집가지 말라 그랬어요?

제 눈엔 분명 아줌마처럼 보이는데...

혜경 이게 진짜...

다준 (쌍 까며) 거기거기 털복숭이 몸 보이죠?

그거 백날 때까지 계속 찢러 보세요 (하고 가는)

혜경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다 다준이 시키는 대로 하자

오호호라~ 잠시 컴퓨터가 다운되는가 싶더니...

휘몰아치던 진눈깨비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시계(視界)가 확~ 밝아지며 다 부수어버린다

피식~ 미소 지으며 다준을 쳐다보는 혜경

27. 현우의 게임회사 사무실 (실내/저녁)

벽에 붙어 있는 ‘아이스 스톰’ 게임 포스터

그 옆 진열대에 놓인 ‘2022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트로피가 보인다.

무슬하듯이 돌아다니며 전화를 받고 있는 대한

그 앞 모니터엔 ‘아이스 스톰’ 메인 홈페이지가 열려 있다.

대한 네 실장님 잘 압니다 (사이) 한 달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액션-슈욱)

그럼요. 저희들 (슉- 슉-) 아직 안 쓰러졌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끓는-) 아 띠팔~ 좇나리 보채네 이걸 그냥 확~당수로~!!!

핸드폰 액정 가득 보이는

멋진 인테리어의 누들 전문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요리를 먹고 있는 지혜의 사진

지혜의 인스타 <싸가지헛바닥-비밀맛집>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현우

현우 (건성으로) IDC ?

대한 (통명스레-) 기껏 5개월 연체됐다고 호스팅 중단하겠잖아.

그동안 갖다 바친 돈이 얼마데...

현우 (여전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너무하네~

대한 (현우를 돌아보며) 야 어차피 우리 대책 없이 이럴 거...

이거 그냥 확 팔아치우고 새 출발하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 못해 먹겠다.

현우 (그제야 뒤돌아보며) 또 그런다. 그 얘긴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잖아.

대한 (짜증내며)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이대론 답이 안 나오잖아, 답이...

넌, 내가 왜 맨 날 집에 안 들어가고 이 갑갑하고 어수선한 사무실에서

비비적대는 줄 알아?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거야! 씨팔~

올 마누라가 나이 쳐 먹고 가장구실 못한다고 들어오지 말래 나가 디지래.

현우 (웃프지만) 형 조금만 더 참자.

(유튜브 강민경 짤느낌으로) 인생은~ 버티는거야~!!

대한 (어이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

28. 복지관 교실 (실내/오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있는 미애

보면, 오늘의 추천 인스타 맨위에 떠있는 ‘라퐁젤녀 VS 지하철빌런스’ 이라는 제목의 릴스

산발한 차림의 혜경이 지하철 안에서 문에 머리채가 끼인채 시끄럽게 통화하다가

지하철의 태권도 단소 빌런1.2들을 만나 기괴하게 싸우며 아수라장이 된 숏트 영상이다!

미애의 작은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디졸브되어 남자의 커다란 웃음소리로 이어진다.

29. 정빈의 소속사 사무실 (실내/오후)

‘라퐁젤녀 VS 지하철빌런스’ 릴스를 보고 자지러지게 웃는,

정빈 이 여자가 나보다 ‘좋아요’가 많아 (푸하하~ 웃고) 인정! 인정~!

심각한 얼굴의 슈렉, 마우스를 빼앗아 유튜브 화면으로 돌린다.

슈렉 걱정 마~~ 오늘의 대박 핫이슈 1위는 니가 될 테니까.

초기화면 오른쪽의 뉴스페이지

‘**아찔한A군의 은밀한 사생활**’을 클릭하면,

상대역 신인 여배우를 유혹한 J군의 섹스 동영상이 나뉜다는 관련 기사와

그 아래 달린 무수한 리플들...



미스터 라면왕 : 이정X, 이라던데...

니뒤에나있다 : 내 친구가 봤다는데 존나 먹어줌 ^^

머리카진소년 : 또 영화 홍보 짜라시냐?

폭주몬스터 : 같이 먹자드니 또 혼자만 드셨군 등등...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 챈 정빈, 인상이 굳어진다.

이때, 문이 ‘쿵~’ 하고 열리고 아란 들어오며

아란 오빠 들었어?

정빈 (슈렉에게 키 던지며) 야 넌 나가서 차나 빼

혜경(OFF SOUND) 오라이~ 오라이~~!!

30.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실내외/저녁)

밖에서 주차요원을 하고 있는 혜경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떡갈비 식당 안

혜경이 조금은 익숙해진 모습으로 주차요원 하라 카운터 보라 전천후로 뛰고 있다

하지만 식사를 하고 나가던 손님들이 수근대며 투덜댄다.

손님1 주인이 바뀌었나? 맛이 좀 틀리네

혜경 (카드 포스기에 사인이나 하라고 전자펜으로 콕콕) 여기여...

손님들이 나가자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혜경

역시 정신없는 주방 안의 나주덕

내키진 않지만 떡갈비를 조금 맛보는 혜경.

혜경 왜 엄마꺼랑 맛이 달라요?

나주덕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사장님이 비법을 퐁퐁 숨겨두셨으니까...

혜경 답답하네여 진짜... 옆에서 그거 하나 못 훑쳐봤어요?

나주덕(걸리적거리리는 혜경을 밀치며) 나도 지금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는 년 뭐 했어? 그동안 엄마한테 좀 배워두지!!!

이번엔 젊은 손님들이 우루루 나간다

후다닥 달려오는 혜경

손님2(혜경의 얼굴을 보고 가우똥~일행과 소곤소곤) 진짜 비슷한데?

혹시? 그 웃기는...엽기... ‘라퐁젤녀 VS 지하철빌런스’ 아니세요?

혜경(의아해하며) 네? 웃기다뇨? 뭐.가.요?

31. PC방 (실내/저녁~밤)

혜경의 얼굴 뺨뺨이 굳었다 놀란 동공은 찢어지기 직전

혜경의 눈동자에 비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엽기 동영상!

자신의 생생하게 웃기고 추한 모습에 뚜껑이 열려 기절하기 일보 직전!!!

혜경, 이성을 찾으려 애쓰지만 결국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의 함성을 내지르고 마는데

혜경(메아리치며) 씨.빠.아.아아~~~!!!

재생... 반복 재생... 돌려보고 또 보고... 광기에 휩싸여가는 혜경.

카운터에서 혜경을 보고 있는 다준

혜경, 다준에게 오라고 까딱까딱~ 손짓한다.

혜경 자리에 앉아 있는 다준.

뒤에서 지켜보며 서 있는 혜경.

혜경 찾아내. 못 찾으면 너 (미성년알바)신고해버린다!

한숨 쉬는 다준

손님이 나가려 하자 혜경이 쪼르르~ 카운터로 가 직원인양 계산을 받는다.

그리고, 다준의 옆에 잔뜩 놓이는 콜라와 컵라면들

혜경 이거면 됐지?

다준 아뇨, 전 현금주세요

혜경(어이없어하지만) 오케이 콜~~~!!!

거래가 성사되고 다준의 현란한 마우스질이 시작된다.
SNS를 퍼온 사이트를 찾고... 또 그 전에 퍼온 사이트를 찾고...
또 또 그 전에 퍼온 사이트를 찾고...찾고, 계속 찾고
마침내 최초로 올려진 사이트를 찾아내는 다준

다준 찾았어요!!

치밀한 수사 끝에 범인을 찾아낸 형사의 표정으로 다준을 밀치고 자리에 앉는 혜경
모니터엔... 현우의 인스타 < 이세계 여자친구 >가 떠 있다! (시간 경과)

현우의 인스타를 관찰하는 혜경

‘#ep33. 그녀가 재미있어 하던 사’ 라는 제목 아래,
(씬6의) 문화전당역에서 찍힌, 허형만 시인의 ‘지하철에 빠꾸기가 산다’ (독특한) 시화액자 사진
이어서 #조선의 핫플 #프리포즈 카페 #나의 발자국 등
제목들이 온통 ‘그녀와’ 관계된 수수께끼 같은 사진과 글들로 도배되어 있다.

혜경 웬 지랄 청승이야, 이거이거...

‘라퐁젤녀 VS 지하철빌런스’ 릴스가 올려진 포스팅 아래에
‘개빡친 라퐁젤녀’ 라는 닉네임으로 DM디엠을 보내는 혜경



개빡친 라퐁젤녀 : 너 살고 싶으면 내일 오후 3시 문화전당역 6번출구 앞으로 나와!!!
아니른 경찰서에서 만나게 될거야!!!!!!!!!!!!!!

32. 현우의 게임회사 사무실 (실내/오전)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우
대한을 찾지만 보이지 않는다
전화를 거는... 소파 위에서 울리는 대한의 핸드폰 벨소리
대한의 핸드폰을 집어 든 현우, 씩씩거리며 다시 문 쪽으로 간다
이때 목에 수건을 두른 채 들어오는 대한

대한 (화들짝 놀라며) 깜짝이야~!

현우 (버럭) 형 미쳤어?... 대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영?

내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대한 뭐~?(이내 감 잡은 듯, 피식) 아, ‘라퐁젤녀 VS 지하철빌런스’...? 이제 봤어?

현우 내 인스타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나니깐?

대한 알고 자시고가 어딴어? 니 비밀번호 전부 지혜 생일이잖아

현우 (인상을 쓰며) 아이 진짜~ 내가 형 땀에 돌겠다. 요즘 그렇게 심심하슈?

왜 쓸 데 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 블루스를 추게 만들어?

대한 왜? 그거 땀에 니 인스타 난리 났어?

현우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몰라... 아이씨발 형이 책임져 난 몰라!

대한 뭘 책임지라는 거야?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 현우의 인스타를 열어보는 대한

대한 (웃으며) 오우~‘좋아요’ 갯수 장난 아닌데! 와우~대~박

‘라퐁젤녀 VS 지하철빌런스’ 동영상에 연속해서 퍼올려진 누군가의 틱톡 릴스를 보며

대한 이 봐 이게 얼마야? 애네들 엄청들 퍼날랐어 완전 대박이야

현우 대박이고 나발이고... 밑에 댓글이나 봐봐

대한의 시점으로 보이는 릴스 아래 무수히 달린 댓글들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키득거리며 천천히 댓글들을 훑어보던 대한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변하고

자세히 보면, 혜경이 보낸 DM이 보인다.



**개빡친 라퐁젤녀 : 너 살고 싶으면 내일 오후 3시 문화전당역 6번출구 앞으로 나와!!!
아니른 경찰서에서 만나게 될거야!!!!!!!!!!!!!!**

잔뜩 인상을 구기고 있는 현우를 힐끗 쳐다보는 대한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옮겨 닉네임을 클릭하지만, 비공개 계정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33. 문화전당역 6번출구 앞 (실내/오후)

문화전당역 6번출구 앞 아시아문화 광장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계

벤치에 앉아 핸드폰으로 수다를 떨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혜경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경계하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혜경 (명랑한 척 오버-조증 모드로) 그럼! 잘 되고 있지...

내가 장사에 소질이 있는 줄 몰랐다. 타고 났나봐. 하하하~

CUT TO

혜경 (우울증 모드로) 그래? 억울하게 죽은 조상님들 위해선 꼭 천도제를 해야 한دا구?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뭐 거북이 오십 마리를 여수 앞바다에 풀면 된다구?

CUT TO

좀 떨어진 곳에서 그런 혜경의 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현우와 핸드폰 통화하고 있는 대한

대한 어... 저기 있는데... (살짝 주눅이 든 듯) 야~ 나 도저히 못 가겠다

이 여자 좀 이상해. 약간 미친...것 같기도하고

현우가 버럭 소리를 지른 듯

인상을 찌푸리며 핸드폰을 귀에서 뺐다 다시 갖다 대는 대한

대한 알았어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냐

혜경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대한

혜경, 여전히 통화하며 천천히 움직이며 ‘도를 믿습니까 인가?’ 하면서 대한을 결눈질로 살핀다

혜경 (또 명랑한 척 오버) 어머 어머... 정말?

개 아직도 나한테 흑심 품고 있는 거 아냐? 어딜 넘봐 미친놈!!

“미친놈”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쟁걸음으로 혜경을 스쳐 지나가는 대한

의아해하며 그런 대한을 다시 주시하는 혜경

대한, 혜경을 힐끗 뒤돌아보곤 눈을 질끈 감으며

대한 (혼잣말로) 졸라 미안하다, 현우야...

하고 황급히 자리를 뜬다

한쪽에선 다시 우울증 모드로 통화하고 있는 혜경

혜경 응 고마워. 잠은 잘 자. 안정도 많이 됐고...

게임회사가 어디 거기뿐이야? 오라는 덴 많은데 일단 여행좀 다녀오려구!

간헐적으로 오가던 행인도 뚝 끊기고 자세가 풀어진 혜경, 시계를 본다.

‘4시’를 지나고 있고 자신이 바람맞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구겨진 공연 전단지만 날리는~ 텅 빈 아시아문화광장 앞의 쓸쓸한 풍경

34. 영화 세트장 (실내/저녁)

영화 <연애남녀> 촬영 세트장

‘TVN 연예정보 프로그램’ 인터뷰 중인 정빈과 아란

미리 준비된 표정과 멘트를 날리고 있다

정빈 (장난치며 아란과 어깨동무하며) 워낙 친하니까 그런 소문이 났나 봐요

오빠 동생이에요. 구아란 씨가 보기보다 털털해서 남동생 같기도 하고

맞장구치며 억지웃음과 함께 장난처럼 팔꿈치로 정빈을 쿡쿡 때리는 아란

미소 속에 리포터가 자리를 뜨자, 둘의 표정이 싹 걸힌다

정빈 (아프다) 이게... 진짜 때리냐?

아란 그럼 오빠 남동생하고도 자냐?

정빈 너 니네 사장한테 나랑 사귀다고 공개 선언한다고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매장 당하고 싶어? 너 딸린 식구들 많다~며

계속 돈 벌어야 할 거 아냐.

아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정빈 (시범 보이며) 웃어라 웃어. 사람들 본다. 내가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너 영화 한두 편 찍고 까불다가 까딱하면 그냥 나락가는 수가 있어

그러다가 케이블에서 하는 간장게장 광고에도 못 나온다고!!

요즘 분위기 살벌하니까 조용히 있어라. 응?

아란 (글썩하는) 몰카 때때 그러지? 설령 그게 진짜 있다고 해도

그래서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해도... 난 오빠만 있으면 돼!

다 참을 수 있어. 그냥 떳떳하게 우리 사랑 밝히면 안 돼?

정빈 이 년 진짜 골때리네. 너 혹시 몰카도 니가 찍은 거 아냐?

그치 그러고도 남지. 너 아가리 쳐다물고 나 아는 척 하지 마

질척대는 년들 딱 질색이니까

아란 (결국 눈물을 흘리는) 오...빠...

정빈 울지 마. 사람들 본다니까. 뚝~~

35. 정빈의 고급 오피스텔 (실내/밤)

모니터와 입맞춤할 것처럼 들이밀고 있는 슈렉
옆에선 정빈이 노트북으로 같은 화면을 보고 있다.
눈동자에서 열을 뿜을듯이 쳐다보는 정빈
자신의 기사 밑에 슈렉이 단 댓글 아래 연달아 다른 댓글을 단다.



젤소미나 : 정빈 오빠, 섹쉬하면서도 귀여운 맛이 있어 ^^
젤소미나 : 연기할 때 가장 간지나는 오빠! 무조건 남우주연상!

슈렉 니 깐 너무 노골적이야. 티 나.
정빈 닥치고 계속하기나 해.
정빈의 동영상에 대한 댓글 밑에 글을 남기는 슈렉...



상하이 박 : 이정빈이 정말 또 그랬을까?

정빈 이 새끼가... 너 누구 편이야?
바로 정빈이 남기는 댓글



젤소미나 : 우리 정빈오빠 욕하지 마열!! 그거 말짱 개수작, ㅁㄷ! 순수감성 이정빈!!

슈렉 누가봐도 최소한 니 사촌쯤으론 생각하겠다
근데 이려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지 않냐?
정빈 (기억나는) 난 밤새고 둘이 이 짓하고 다녔던 거? 기억하기도 싫다
슈렉 너 첫 앨범 냈을 때, 우리가 아이디 바뀌가며 방송국 음악프로 게시판에 매일 신청곡
올렸던 거도...! 올려도 올려도 안 틀어주더니, 내가 니 노래 제목 일부러 맞춤법 틀리게
써서 웃기다고 그때 한번 틀어 줬잖아 ㅎㅎ
정빈 (관히 몽클) 그 망한 앨범 애긴 하지 말랬지, 내가...
슈렉 그때 넌 가요순위 1등, 난 텔런트 합격이 꿈이었잖아. 우리 둘이 잘라몬
겹치고 포개서 자야 하는 데서 자고, 서울 길 몰라서 맨 날 돌고 늦고...
그때 우리 별명이 완존 '덤 앤 더머' 였잖아.
정빈 (관심 없다, 댓글 읽다 폭발) 뭐야 씨발~ 다 욕이야. 안티 악플 다는 새끼들 죄다
손가락 찌르고, 대가리 빠개서 다 죽여 버려야 돼. 글고 딴 연연 사진들은 죄다
합성이네 하고 지랄하는 것들이, 내 깐 왜 다 진짜 래?
(슈렉 뒤통수를 때리며) 매니저란 새끼가 그동안 뭐한 거야?
지배우 이미지 걸레 되는 동안 뭐 했냐고? 계속 이럴 거면 그만뒤 새끼야~

슈렉, 씩씩하게 웃는다

정빈의 욕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댓글을 남기고 있다



상하이 박 : 그거 백퍼 이정빈 맞을 겁니다 !!!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백스페이스 키로 쓴 글을 지우는 슈렉(웃프다)

36. 지하철역 내 (실내/오후~저녁)

혜경, 밀정을 잡아내려는 일본 순사처럼 매 눈을 하고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녀가 오가는 1미터 주위로 무시무시한 살기가 아우라처럼 뿜어져 나오는데

오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는 혜경 (시간 경과)

김밥(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혜경 (시간 경과)

퇴근 시간, 몰려나오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혜경(시간 경과)

초췌한 혜경, 지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

지하철이 도착했는지 사람들 또 올라온다.

벌떡 일어나는 혜경

‘뚜뚜뚜뚜~’ 혜경의 눈에 클로즈업되는 누군가의 특이한 가방

<이세계 여자친구> 인스타에서 어렵פות이 보이던 그 가방임이 확실하다!!

사냥감을 포착한 독수리처럼 겁나게 돌진하는 혜경

자신에게 다가오는 혜경을 알아본 현우

이내 사태를 파악하고 급 놀라서 뒷걸음을 치기 시작하는데...

혜경 (손을 부르르 떨며) 너... 너지?

현우, 뒤돌아 계단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떠나려는 지하철에 올라타는 현우

문 닫히려는 순간, 완벽하게 미끄러지며 승차하는 혜경

현우는 도망가고... 혜경은 뒤쫓고...

‘툼과 제리’를 방블케 하는 유치하지만 치열한 추격전

지하철 다음 역에 도착하자, 현우 뛰어내린다.

지하철 문이 닫히려는 순간, 간신히 따라 내리는 혜경

37. 다음 역 (실내외/저녁)

열나게 뛰어 올라가지만 매표소 앞에서 현우를 놓친 혜경

역 밖으로 나가 찾아보지만 안 보인다.

허탈하게 다시, 역 안으로 내려온 혜경, 그냥 돌아가려는 순간

‘삐삐삐삐~’ 그녀의 동물적 직감이 잡아낸 축, 인생사진 찍는 ‘캔디카메라박스’부스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펼쳐진 거울뒤로 거뭇거뭇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

혜경, 천천히 다가가 화악~ 달려들듯이 거울뒤로 들이닥치면

캔디박스뒤 보조 의자 위에 (발을 올리고) 쭈그리고 앉아 숨어있는 현우, 허거덕~

CUT TO

지하철역의 으스스한 구석

현우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기요... 그거 제가 찍은 거 맞구여,

제 인스타에 처음 올려진 것두 맞는데

그게... 그걸 제가 찍긴했지만, 올린 건 아니라면 믿으시겠어요?

혜경 (단호히) 아니 못 믿겠는데

현우 (체념한 듯 차분하게) 그렇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무튼 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그럴려구 했던 건 아니구여(이하, 수다스러운 변명-패스트모션으로)

사실 그때, 지하철에 타고 있던, 같이 일하는 형님이 피곤했는지

침 흘리면서 조는모습이 웃겨서 놀리려고 찍고 있었던건데~

거기 갑자기 님께서 짜잔, 급하게 타시다가 머리가 끼신거고,

마침 태권도 할배와 단소할배들이 등장하신 거구요...

(지하철서 졸고있는 대한과 혜경 상황이 릴스대로 과장되게 보여지고)

우연히 휴대폰을 열어보던 그 형이 그 동영상을 보고는 너무 재밌다고,

자기가 졸고있는 장면은, 싹 빼버리고 님쪽을 확대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구요.

그 형이 워낙 엽기 유머를 좋아하는 매니아거든요.

혜경 재밌는 거? 엽기? 어~ 그래! 그럼 그 재밌고 엽기동영상 좋아하는 그 형하고

나란히 들어갈래?

부릅뜬 혜경의 눈이 무섭다.

현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딜요?

혜경 어디긴~ 죄를 지었으면 감방에 가야지, 왜? 혼자 갈래?

사식 넣어줄 사람 필요해?

현우 저기... 그 선배 형을 보내고, 제가 사식 넣어주면 안 될까요?

혜경 (꽤~ 소리 지르는) 야~~! 이게 너 구멍가게에서 쏘세지 흠치다가 걸린게 아냐

사태 파악이 그렇게 안 되니? 너 너... 그거 땀에 나 시집 못갈 수도 있어
나중에 내 남편 될 사람이 그거 보고 파토 내면 어떡할래? 니가 책임질래?
현우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면 결혼하면 안 되죠!

조용조용 할 말 다 하는 현우의 모습에 혈압이 두 배로 뛰는 혜경.

혜경 뭐 뭐시라? 오호~ 이 자식, 대충 성격이 어떤 놈인지 윤곽이 잡히네
이런 개변태 같은 새끼... 너 같은 놈들은 현실 세계에서나 저 메타버스 세계에서나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

살벌한 기운을 감지한 현우, 한 발짝 물러서며 황급히 가방을 뒤적이는 현우

현우 저 잠깐만요. 안 그래두... 어떻게든 찾아볼려고 그랬어요.
혜경 (코웃음 치며) 뭐? 찾아봐? 그런 놈이 튀긴 왜 튀어?

대답 없이 허둥대며 가방에서 핸드폰을 찾는 현우...

혜경 뭐해? 어쭙~ 그새 합의금 챙겨 왔니? 아서라~ 합의 안 한다!

현우 (핸드폰 내밀며) 돈... 아닌데요

현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일까 싶지만...제 인스타에 올려진 건 일찌감치 내렸구요
여기저기서 퍼간 것들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진 웬만한 건 다 삭제시켰어요
여기 영상 파일 원본입니다. 직접 지워주세요 여기 휴지통도 완전삭제 해주시고요
(사슴눈이 되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슬로우모션으로 불링블링한 현우가 멋있게 보인다) 현우의 너무나도 진지한 사과에
왠지 살짝 흔들리는 혜경

이건 머지? 내가 왜이러지? 하는 표정으로 멍하니 현우를 바라보는
혜경의 눈치를 살피던 현우, 조심스레 입가에 애교 섞인 미소를 띄우는데
번뜩~ 정신을 차린 혜경

혜경 (다시 험악하게 인상 쓰며) 웃어? 누가 웃으래? 이게 콧~!!

깜짝 놀라며 웃음기를 거두는 현우... 다시 고개를 가만히 떨군다

38. 안채 방 (실내/밤)

현우의 인스타 메인 화면

현우의 말대로 혜경의 ‘라퐁젤녀 VS 지하철빌런스’ 동영상이 사라져 있다

그때 새롭게 업로드되는 피드

보면, ‘**사과3종 세트**’ 라는 제목 아래,

(앞 씬의 ‘**캐디카메라박스**’에서 찍은 듯 보이는) 두 손 모아 싹싹 빌고 있는 사진

진짜사과를 들고 손가락으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시늉을 한 사진

두 손을 얼굴 옆으로 들고 행복하다는 시늉을 한 사진 등

현우가 혜경에게 사과하는 3가지 버전의 귀엽고 애교스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별 놈 다 보네’ 하는 표정으로 피식~ 미소를 짓는 혜경

화장대 위에 올려진 명함을 집어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명함에 ‘**아인크래프트 이사 안현우**’ 라고 인쇄되어 있다.

39.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화장실 (실내/오후)

화장실로 도망치듯 뛰어 들어가는 혜경, 궁지에 몰린 생쥐처럼 안절부절이다.

혜경 (문손잡이를 꼭 움켜잡고) 아 쪽팔려 쪽팔려, 저걸 어떻게해!

주방 아주머니들 들어와서 혜경을 질질 끌어낸다.

문을 잡고 버티는 혜경

혜경 나 못해요 안돼요. 내 친구들이 나 여행갔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방송 나가면 안돼요, 절대 안돼 절대!!!

40.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실내/오후)

방송국 맛집소개 프로그램에서 촬영 준비중인 스텝들

지혜PD, 대본을 보며 촬영감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한쪽에서 거만한 자세로 앉아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정빈

(어디서 본거지)‘재가 누구더라? 누구였더라?’ 하는 시선으로 혜경을 힐끗힐끗 쳐다본다

보면, 알이 큰 나비 섀글라스에 구찌 스카프를 두르고 모자를 꼭 눌러쓴 혜경

주방 앞에서 나주댁 아줌마들과 수군거리고 있다.

구석에서 정빈처럼 혜경을 보고 가우똥? 하고 있는 슈렉

혜경 (나주댁에게 속닥) 아줌마가 사장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주댁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혜경 그런 게 있어요... 난 아줌마들이 SNS 잘 모르는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나주댁 그럼 니가 주방장 할래? 근데 고기 다지고 양념들 만드는 것들도 다 짠다는데...

혜경 (영겁결에 경례하며) 넵~!

CUT TO

정빈의 새영화 홍보를 위한 <스타의 단골 맛집>을 소개하는 촬영이 시작된다.

멘트 소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몸을 살살 돌리고 피하며 뒷모습 옆모습만을 카메라에 보이게 하는 혜경

리포터가 된 정빈, 바짝 몸을 붙여 혜경의 정면을 보려 애쓴다.

정빈 우리 주방장님... (나주댁을 가리키며)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시고

이렇게 주방에서 2대째 손맛을 이어오고 있으시잖아요?

혹시 가장 중요한 이집만의 맛의 비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혜경 (카메라를 등지며) 참 나 그거야 비밀이죠~

정빈 에이, 그러지 마시고 살짝 저한테만 힌트라도 주세요. 저 단골이에요~

혜경 (궁시렁) 단골은 무슨... 태어나서 침 보는구만

순간 혜경의 얼굴로 들이대는 카메라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으로 각종 양념을 듬뿍듬뿍 요란하게 버무리며 처대는 혜경

‘그게 아닌데...’ 나주댁의 불안해하던 표정이 불안을 넘어 점점 일그러진다.

혜경 (마구 버무리며 천연덕스럽게) 우리 화정떡갈비는 우선 재료가 생명이에요

암소중에서도 가장 맛의 중심을 잡아주는 갈빗살이 많이 들어가고요

고소한 육즙을 내는 양지차돌과 쫄깃한 식감을 내는 우든살이 골고루 들어간답니다

또한, 100% 올가늌 순창 고추장과 간장을 배합한 비법양념이 맛의 비결이며

그리고 뿔보다 핵심이 되는 우리소 암소한우, 한우!! 따라하세요 암소한우~!

정빈 (얼떨결에) 암소한우~!

혜경 저희는 매일 저어기 양산동에서 당일 도축되는 암소한우를 공수해 오거든요

눈이오나 태풍이 몰아쳐도 항상 그렇게 해오고 있답니다

정빈 (애, 뭔가 약간 이상하다...) 아 정말요? 네... 그렇군요. CUT TO

(연탄)불에 고기를 굽는데 자꾸 태우고 망가뜨리고 부서지고..영 어색하기만하다

에둘러 컷 사인을 보내는 지혜

지혜 오케이 좋구여. 이제 먹는 거 찍겠습니다.

정빈 (그러다, 기어이 혜경을 알아보고) 저기...

혹시 ‘라퐁젤녀 VS 지하철빌런스’ 아니세요? 맞죠?
(자지러듯이 웃으며) 그거 진짜 웃겼는데... 하.하.하.

아닌 척 모른 척, 등 돌리고 이미 노릇하게 구워진 떡갈비에 또 먼가 양념? 을 뿌리는 당황한 혜경
CUT TO

마침내 시식하는 상에 혜경이 만든 먹음직스러운 윤기나고 노릇한 떡갈비가 올려지는데

정빈 (과장되게) 와아~ 이 군침 도는 노릇한 자태와 구수한 향기~ 시청자 여러분! 혼자만 먹어서
죄송하구요, 영양 넘치는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먹고 힘내서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감독님들, 한우 역할은 사양하겠습니다. (먼가 어색) 하하하하~

한 입 와락 떡갈비 베어 무는 정빈, 환한 웃음이 가득한 표정 클로즈 업...!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끝을 맺고는, 급격히 얼굴이 일그러지며 ‘튀에~’뺏어 내는데
컷 사인을 하는 지혜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혜경을 노려보며 벌떡 일어서는 정빈

정빈 여기가 맛집이라구?? 이거 몰카 아냐?
이건 일부러 나 옛 먹이려는 거야. 그치?

얼굴이 구겨지는 혜경, 너무 놀라는 지혜
수군거리는 나주댁과 아줌마들, 방송 스태프들
달려와 정빈을 막는 슈렉

슈렉 정빈아 그만하자. 워워 이정빈~!

정빈 (떡갈비를 강제로 슈렉의 입에 쑤서 넣으며) 너두 먹어. 이건 먹어봐야 돼!
맛이 씨발... 좇나 웃겨!

역시나 일그러지는 슈렉의 표정...

정빈 어때? 웃기지? (지혜PD를 보고 비아냥거리며) 김 PD님 입맛이 아주 지대루
독창적이십니다?
하고 많은 맛집들 중에 이런 돼먹지도 않은 델 데려와서는...

인상 굳어지며 금세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지혜

정빈 (혜경을 쳐다보며) 아줌마 이거 해서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겠어?
그리고, 얼른 때려치고 개그맨 해라. 그게 진짜 아주 아주 소질 있더라

(울그락불그락)부르르 떠는 혜경

정빈 모녀가 아주~ 대대로 음식가지고 사기치고 있구먼!

(그 말에 빠친 혜경) 갑자기 떡갈비 옆에 있던 돼지등뼈 끓이던 냄비를 번쩍 들더니 포효하며 달려가 정빈에게 퍼붓는다.

혜경 (분노에 찬 일갈)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

슈렉과 함께 사이좋게 돼지등뼈를 덮어쓰는 정빈
(냄비에서 쏟아지던 등뼈 하나가 정빈의 머리카락에 엉켜 대롱대롱~거린다)
놀라면서도 먼가 시원한 지혜

41. 현우의 게임회사 사무실 (실내/저녁)

화면 가득 모니터를 통해 보이는... 지혜의 <싸가지헛바닥-비밀맛집> 인스타
벽에는 떡갈비와 돼지등뼈 국물 자이 오줌싼 이불 지도처럼 얼룩져 묻어 있고
정빈과 슈렉의 머리카락과 옷에 등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처참한 옷핀 사진들
물론 정빈과 슈렉의 눈 부위는 검정 띠로 모자이크 처리 되어 있다.
그 아래 지혜의 설명글



미친 사장, 아니 미친 놈! 그 따위 정신으로 무슨 장사를 한다는 건지.
'XXXXX'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전국 떡갈비집 중에서 단연 베스트였는데...
그 담백하고 깊은 손맛은 간 데 없고, 미친 어린사장X의 더러운 똥맛만 남았다
최.악.이.다!!!

지혜의 인스타를 '어, 이상하네' 유심히 보고 있는 현우...

42.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식당 (실내/밤)

영업 마감 시간
혜경의 핸드폰의 '씨릿플레이'로 경쾌한 클럽 마감 음악이 흐르고 있지만
축 처진 채 청소하고 있는 혜경과 아줌마들...나주댁은 주방에서 돼지등뼈를 푹~끓이고
이때, 문 열리고 손님 들어온다.

혜경 영업 끝났...

놀라서 입 벌어지는 혜경
문 앞에 파악 서 있는, 손님은 바로 현우다!
현우도 놀라 자빠질 듯한 표정...! CUT TO

상에 반찬들을 내려놓는 혜경, 의혹에 불타는 눈길로 쳐다보고
뭔가 살짝 불편하게 앉은 현우
혜경, 못참겠다는 듯이 현우 앞에 앉아 본격적으로 따진다

혜경 무슨 속셈이야? 나 스토킹한 거야?

현우 저야말로 놀랐어요. 저 여기 단골이에요. 증거 보여드려요?
저~어기 있잖아요

현우가 가리키는 벽을 보면, 매스컴에 소개된 ‘맛고을 광주의 3대 맛집-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관련 기사를 스크랩한 신문 잡지 소개된 자료들이 잔뜩 붙어 있다
TV 방송된 캡처 사진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현우의 모습이 큼직하게 찍힌 게 있다!

혜경 엇~ 진짜네 (자리에 앉으려다가 도로 벌떡 일어나 사진 앞에 코를 박으며)
근데 이게 누구야! 오늘 그 이정빈인가 뭔가 하는 싸가지랑 같이 온 PD 아냐?

현우 옆에는 예쁘게 떡갈비를 들고 맛있게 웃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 보인다.

혜경 뭐야? 이 여자 아는 여자야?

현우 네 여자 친구예요. 옛날 여자 친구

혜경 아하~ 그 청승맞게 뒤통무니 쫓아다니는 옛날 애인이 저 여자구나...?

현우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혜경 (비꼬듯) 그러셔~~뇌에~네

주방 쪽으로 가는 혜경, 그때 주방 앞에 서서 수군거리던 아줌마들

여수댁 누구야? 남자 친구?

순천덕 (멀리 현우를 힐끗거리며) 능력 좋다. 완전 영젠데...

혜경 왜들 이러세요.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주방의 나주덕에게) 아직 멀었어요?

나주덕(O.S) 어~ 다 됐어. 지금 나가.

혜경 그만들 퇴근하세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천덕 (놀리듯) 왜? 우리 보내놓고 무슨 짓 할려구?

(손으로 입 닦아 먹는 시늉을 하며)欸~

순천덕을 톡 치며 재밌다고 깔깔거리는 여수덕

혜경 (당황해하며) 아이 참 아니라니깐요!

나주덕 (새로구운 떡갈비를 내오며) 거 눈치 없이 왜들 그래?

젊은 사람들 오붓한 시간 보내게 나이 든 사람들은 빨리 퇴장해 주자구

혜경 하... 아줌마까지 왜 그러세요

어쩔 줄 몰라 하는 혜경

테이블 위에 놓여진 잘구워진 노릇한 떡갈비와 정갈한 반찬들

얼굴에 화색이 도는 현우, 젓가락을 들어 향을 음미하더니 이내 한입 쏘옥~ 베어문다

현우의 표정... 변화가 없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혜경

현우 (한참 맛을 음미하다) 흐음 진짜 맛이 형편없어졌네여

혜경 아니야. 이건 낮에 거랑 다른 거야. 우리 나주덕 아줌마가 했어.

현우 (이제 생각난듯)참 죄송해요. 늦었지만 어머님 돌아가신 거 애도의 말씀드립니다 (꾸벅)

저 어머님 떡갈비 정말 좋아했어요. 지혜랑 삼겹살보다 더 자주 먹으러 왔었는데...

우리 지혜가 알아주는 미식가였거든요

혜경 우리 지혜? 아아~ 그 싸가지... 입맛은 꽤 고급이네

현우 유명하다는 단양 떡갈비집들과 인근 소문난 맛집들은 다 다녀봤는데요

떡갈비는 단연코 여기가 최고였어요.

영화로 치면 별 다섯, 호텔로 치면 7성 호텔, 최소한 미슐랭 쓰리스타급 이상의

푸짐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게...

음식을 보면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빅데이터가 나오는데

어머님은 겉보다 속이 훨씬 깊고 넓고 푸근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참 서운하고... 슬프네요. 그 맛을 다시 맛볼 수 없다는 게...

엄마 얘기가 나오자 코끝이 시큰해지는 혜경, 괜히 판청 부린다

현우 근데 왜, 어머님한테 만드는 법 배우지 않으셨어요?

혜경 나 이래봬도 디자이너야. 바빠서 여기 일 년에 몇 번 오기도 힘들었어

현우 (의외라는 듯) 정말요?

혜경 (자존심 상한) 애 봐라. 왜? 안 믿겨?

현우 아...아니에요. 근데 무슨 디자이너예요? 패션? 인테리어?

혜경 (기회를 잡았다 싶은) 사실은 나...

(말하려는) 혜경의 말을 흘려들으며 가방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꺼서

혼자만의 밥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현우

현우 (건성으로) 네? 뭐라구요?

혜경 (김새는) 아니... 됐다.

왜 또 인스타에 올리려고? #혼자 #청승떨며 #먹는 #추억의 떡갈비

이러는거 옛날 여자 친구가 싫어하지 않아?

현우 뭘요?

혜경 자기와의 추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현우 지혜가 와서 보라고 일부러 만드는 거니까요

혜경 에이~ 안 볼 텐데...

현우 (노려 보듯) 눈 또랑또랑

혜경 보면? 보면? 히이구! 그 지혜가 그 인스타보면서 옛추억에 젖어 다시 너랑

잘 될거란 망상을 하고있는 거야?

나같으면 기분 더러울것 같은데!!

아~놔! (문득 라폰젤 생각나서) 나 또 짜증 나려고 그러네

혜경의 기운을 감지한 현우, 괜히 잘 먹는 척 하며

현우 누난 떡갈비 안 좋아하죠?

혜경 (‘누나’란 말에 살짝 기분이 묘해져서) 난 삼겹살같이 그냥 구워먹는건 좋아하는데

썰고 다지고 채치고 재우고 담그고... 그 많은 과정과 시간이 들어가는 떡갈비는 지긋지긋해

현우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 끄덕이고) 근데, 사장이 너무 맛을 모르면 주방에서 맘대로

하는거예요. 좀 잘하는 집 가서 맛도 좀 보고 그러세요. 그래야 감을 잡죠
혜경 참 나. 여기도 떡갈비가 넘쳐나는데 내가 왜 내 돈 주고 떡갈비를 사 먹어?
현우 제가... 사드릴까요? 지난번 일 정식으로 사죄하는 의미로...

이건 머지, 귀가 쫄긋하는 혜경

43. 다른 담양식 떡갈비집- 무등산아래 청와정 (실내/오후)

점심시간인데도 빈자리가 보이지 않는 담양식 떡갈비집

손에 쥔 번호표를 구기고 있는 혜경... 12번 대기표다

현우가 혜경을 잡아끈다. 차례가 왔다 CUT TO

현우와 혜경 앞에 놓이는 먹음직스러운 도톰한 담양식떡갈비

덥석 먹기 시작하는 혜경

혜경 에이~ 울 엄마꺼 보다 펍펍하고 맛있네. 가격도 울 엄마꺼 보다 훨 비싸구

가게도... (둘러보곤, 꽤 크다.) 가게만 으리으리하네

현우 그러지 말고 천천히 맛을 음미해보세요. 누나

투덜대는 혜경 앞에 곱게 잘라낸 떡갈비를 내미는 현우

‘누나’라는 호칭과 현우의 자상함에 아무 말 않고 고분고분 받아먹는 혜경. 나름 맛있다

현우 오늘은 제가 쓰는 날이니까 편히 드세요 풀서비스 할게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잘하거든요

차분하게 젓가락을 움직이며 한점씩 먹기좋게 챙겨주는 현우의 세심한 손놀림

가늘고 섬세하고 은근히 섹시한(?) 현우의 손을 가만히 보고 있는 혜경

노처녀의 군침 도는 시선이다!

44. 혜경의 집 안채 (실내/밤)

앞 신의 혜경의 시선 약간 실망한 기색으로 바뀌면

노트북을 통해 현우의 인스타를 보고 있는 혜경

‘ep34 #오래된 집 #단골 #깨맛집’ 라는 태그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는 수저 밑반찬들 떡갈비 서비스로 나온 요구르트 박하사탕

그리고 통통한 사장님 얼굴까지 찍은 아기자기한 사진들이 잔뜩 올려져 있다

그 아래 설명글엔



#담양식 #대나무 #떡갈비 #맛이 변했을까봐 #개걱정 #변함없었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내맘처럼 #변함없이 #똑같은것들 #하나둘 #늘어났으면 #좋겠어

혜경 (궁시렁) 지 혼자 갔어? 지 혼자 먹었냐고?

내 사진도 몇 방 찍드만(쩍...)

(식당사장 사진을 보다가 확, 짜증나서) 내가 이 아저씨만도 못해?

‘떡갈비소녀’이라는 닉네임으로 댓글을 남기는 혜경...



떡갈비소녀 : 자기야~ 오늘 너어무 잘 먹었어 자기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있지! 또 사줘잉~ ^^

혜경 (혼잣말, 히죽히죽~) 또 버릇 나온다. 하여튼 영계만 보든.

글을 남기자마자 현우로부터 DM이 온다.



지혜는 아직 내 인스타 주소도 몰라요. 헛수고예요 ^^

깜짝 놀라는 혜경, 자기 머리를 때리며 창피해 우왕좌왕하다가 읽씹 하는데,
그때, 다시 현우로부터 DM이 온다



?? 읽씹? ㅇㅅㅇ

‘앗 어찌지?’ 더 당황하는 혜경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뭐... 할 말도 없고 해서... 안 자고 뭐하셔?



그러는 누난 뭐해요?



영... 내 옆기 동영상 보다 또 열 받아서 머리 좀 식히고 있었다. 찼~



혈~아직도 남은 게 있어요? 미안케시리... ;
사죄의 의미로 또 뭘 해드리면 될까요? 누님



머리 박어!



지...금... 박고서... 쓰고 이씨요... ㅠㅠ



바지 벗어



앗! 안 입고 있는데...

혜경, 현우와 메신저 주고받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티키타카 노가리를 까는 두 사람

45. 도로 (실외/오전)

출근 시간, 정체된 도로 가운데 서 있는 정빈의 밴
운전 중인 슈렉
의자에 푹 기대앉아 슈렉이 해놓은 자신의 사인 문치를 보고 있는 정빈

정빈 (창밖을 보자 짜증이 솟는다) 이 시간에 이 길로 오는 빙신이 어딴냐?

슈렉 우리의 친구 티맵이...

정빈 너 티맵이 지옥으로 가라면 좌회전, 우회전해서 고대로 갈 거야? 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티를 내요 꼭.

슈렉 (꼭 참고) 시나리오는 다 봤어? 오늘까지 답 주기로 했잖아

정빈 그거? 어디다 뒀더라. 앞에 쏙 읽었는데, 머리 짧게 밀고 바보연기 하는 거데?

넌 지금 내가 ‘어버버버’ 하는 연기 해야겠냐?

슈렉 그거 회사서도 만장일치로 오케이 난 거고

내가 봐도 그 시나리오 작품성 되게 좋아

정빈 대표한테 말할 거야 안 한다고. 그리고...

(슈렉 머릴 한대 때리며) 작품성? 니가 봐도? 니가 알긴 뭘 알어?

(또 때리며) 오디션도 수백 번 떨어진 게...(하며 또 때리려는데)

슈렉, 뺄돌아 눈 질끈 감으며 차를 급정거하며 길가로 멈춘다

슈렉 (정빈을 돌아보며) 야 이정빈~!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너 언제까지 니가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어? 이제 나 내 갈 길 갈 테니까
넌 니가 아는 그 졸라 빠른 길로 가라. 잘 있어라! 이 새끼야
아 졸라 재수없어!!!

차에서 내려 도로 가운데를 씩씩하게 걸어가는 슈렉
뚱그래진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 정빈
잠시 후, 차문이 열리고 슈렉이 들어온다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을 짓는 정빈
(그러나) 차에서 네비로 쓰던 본인 태블릿을 들고 나가며 문을 다시 쿵! 닫는 슈렉
그때 '땡땡' 정빈의 폰에 "그 여자분도 잘 계시지요?" 라는 협박 문자에 흠칫하는 정빈

46. 복지관 교실 (실내/오후)

아이들은 방과후 미술시간 인듯 즐겁게 수채화를 그리면서 놀고 있다
이때, 교실 밖에서 형사같은 건장한 남자 둘이 미애를 찾아온다
미애, 심각한 얼굴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앞쪽의 수빈을 불러 먼가 이야기하면
달려나가는 수빈, 복도 끝 싱크대에서 수채화 물통과 붓을 닦고 있는 다준을 향해

수빈 다준아 누가 찾아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 델코 오래
올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는 다준의 불길한 얼굴에서.

47. 서부경찰서 앞 (실외/오후)

언론사 차량들과 기자들로 아수라장인 경찰서 앞

기자 (심각하게 나불댄다) 그 동안 SNS상에서 음란 동영상이 나돈다는 악성 루머에
시달렸던 영화배우 이정빈 씨, 그 악성 루머를 퍼뜨린 용의자가 서울지방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의 공조로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붙잡혔는데요
놀랍게도 열 두살 짜리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A군은 동네 PC방에서 훔친 성인 아이디를 이용,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A군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밑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뛰어난 성적과 모범적인 행동을 일삼아 주위의 칭찬을 받아오던 터라 사람들을
더욱 충격에...

기자들의 마이크에 둘러싸인 정빈, 심각한 표정이 끝내준다

48. 동 취조실 밖 (실내/오후)

미애가 문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기자들에게 따지고 있다.

미애 미성년자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카메라 안 치워요?

왜들 이러세요! 제가 보호자예요!

미애의 강력한 경고에 조금씩 길을 내주는 기자들

49. 동 취조실 안 (실내/오후)

밖은 여전히 시끄럽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의자에 앉아 있는 다준

정빈, 다준의 실체를 보고 안심한 눈빛이다

정빈 겁나는 초딩일세. 나 원 참...

그 사이 정빈과 실장급 매니저들, 속덕속덕 무언가를 상의 중이다

매니저1 오히려 잘 됐어. 우리 정빈이 이미지 세탁할 기회라고 생각하자고...

50. 다시 경찰서 앞 (실외/오후)

임시 기자회견을 여는 정빈, 근엄하면서도 수심이 깊은 표정으로 말한다

정빈 조카뻘 되는 어린앤데,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위의 관심을 끌려고

그런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소외된 어린이들한테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오히려 어른인 제가 더 부끄러웠습니다

네 분명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편도 너무 딱 해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미 제 머리속에선 이미 없던 일이 됐습니다.

(쿨한 척)제 머리 속에 지우개가 들었나 봐요. 하.하.하.하~

웃는 기자들

더없이 선량한 얼굴로 비춰지는 모니터 속의 정빈

51.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실내/오후)

오랜만에 화장까지 하고 한껏 멋을 낸 혜경

저녁 장사 준비를 하던 나주댁과 아줌마들, 그런 혜경이 못마땅한 듯 새초롬하게 쳐다본다

순천댁 뭐야? 그 차림은...? 또 나가?

혜경 (배시시 웃으며) 죄송해요. 근데 저 놀러가는 거 아니에요.

시장 조사하러 가요. 시.장.조.사.

여수택 시장 조사? 시장에서 뭘 조사하는데...?

순천택 (여수택을 한심한 듯 쳐다보곤, 혜경에게)

이제 곧 손님들 들이닥칠 텐데... 거, 한가할 때 조사하면 안 되나?

안 그래도 일손 딸려 죽겠는데...

혜경 (순천택을 안으며) 에이~ 아줌마~아, 좀 봐주세요

다 우리 식당 잘 되자고 그러는 거니까. 네에?

나주택 (웃으며) 알았어. 여긴 우리에게 맡기고 가봐

혜경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늦을지도 모르니까, 저 기다리지 말고 퇴근들 하세요

나주택 빨랑 가~ 그때 그 총각 아까부터 저기서 기다리더라

혜경 (놀라며) 네? 진짜요?

52. 동 식당 앞 (실외/오후)

혜경 뛰어나오면

현우 붉은색의 낡은 오픈카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놀람 반 설렘 반의 표정으로 현우에게 다가가는 혜경

혜경 왔으면 왔다고 하지 많이 기다렸어?

혜경의 차려입은 모습에 잠시 났을 옹고 보던

현우 우와~ 딴 사람 같아요

혜경 (좋으면서도 태연한 척) 뭘...

(차를 힐끗 보며) 뭐야? 차도 있었어...?

현우 (웃으며 조수석 문을 열며) 타시지요

53. 도로 (실외/오후)

차 안을 훑어보는 혜경, 나름 그럴듯한 오픈카 여기저기를 만져보며

대쉬보드를 열어보고 다시 닫으려 하지만... (엥) 안 닫힌다

현우, 항상 그런듯 주먹으로 쿵~ 하고 대쉬보드를 때려 넣는다

현우 지혜가, 남자 친구가 오픈카 끌고 자기 기다리는 거, 그런 거 좋아해서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해주는 거 자기도 다 해달랬거든요

혜경 그...래? (비아냥) 근데 그거 아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자한테 그런 거

해주는 남자는 대부분 조연이고 (시크하게) 끝엔 죄다 차이는 거!

현우 그런가여? 나도 그래서 차였나? 카페 통째 빌리고, 트렁크가득 하트풍선 날리고

아플 때 전복죽 썬다 주고, 기념일 마다 챙겼었는데~ 그건게 다 조연 같아서...

혜경 (살짝 부러움) 완전히 끝난 거 아니라며...? 왜그래 싸나이가~!

(위로한답시고 운전하는 현우의 어깨를 힘껏 쳐주며) 그래도 세상엔

조연도 못해본 단역이 더 많단다, 짜~숙! 조연이 어디야~

혜경의 (타격감으로) 핸들이 흔들리며 덩달아 좌우로 흔들리는 현우의 차

여기저기서 클락션이 울리고 도로가 순간 혼란에 빠진다

혜경 (당황하며) 헛, 소리~

당황했던 현우 곧 페이스를 찾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피식~ 웃으며 달려나간다

54. 두부 요리집 (실내/저녁)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두부 요리가 나오고

미애가 잘게 잘라진 두부를 다준에게 먹이려 들고 있고

다준이 먹으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어디가 아픈지 인상이 찌그러진다

다준의 팔에 난 멍 자국을 보는 미애, 안스럽다

미애 아이 참~ 아까 사람들... 역세계 잡아당기더니만

다준, 자존심이 상하는지 시선을 피하고

정빈, 앞에서 가소롭다는 듯이 다준을 쳐다본다.

정빈 이녀석~ 너 아주 큰일 날 뻔한 건 줄은 알어?

사람 한번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너 장발장 읽어 봤지?

거기 주인공 장발장 아저씨도 빵 하나 훔치려...

다준 ‘레 미제라블’이에요. 장발장은 제목이 아니에요

정빈 (기가 막히다) 그래? 그렇지! 니가 그렇게 사회에 불만이 많다며? 그래서

이 영아가 그리 만만해 보이디, 응?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들 중에서 내가 딱 니 밥으로 보이든?

미애 저어 죄송한데요. 우리 다준이 오늘 혼날 만큼 혼났거든요

아까 다 끝냈으면서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그러세요?

정빈 (건방지게) 선생님이라면서요?

미애 전 방과 후 돌봄 선생님이예요.

정빈 방과 후? 어느 동넨데 학교 이름이 그래여?

미애 (어이없는) 수업 끝나고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에요

다준이 전담 복지사 박미애입니다

(명함 꺼내 건네며) 향후 다준이 문제는 여러 선생님들과 상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너무 내몰지 말아주세요

어른들이 앞질러서 문제를 확대 해석 할 경우

아이는 바로 설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똑 부러지게 자신을 감싸는 미애의 태도에 놀라는 다준

정빈 와아~ 누가 들으면 내가 잘못된 줄 알겠어요

이때, 사회복지과장이 테이블 노크를 하며 미애를 부른다

사회복지과장 저기, 박선생님, 잠시만...

미애 다준아,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게.

(정빈에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둘만 남게 되자 정빈, 손가락으로 다준의 머리를 내려치며 갈군다

정빈 요, 요, 변태 자식... 어린놈이 발라당 까졌네. 너 임마 너 땀에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줄 알아? 이 멀리까지 달려오구말야 어떻게 물어낼래?

어디서 감히 그따위 썩구라 찌라시를 전국 방방곡곡에 유포하고 말이야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가만히 듣고만 있던 다준, 고개를 쓰으~ 든다

눈 밑에 다크 써클이 섬뜩하다

정빈, 다준의 카리스마에 흠칫 놀라는...

다준 전 거짓말한 적 없는데요

정빈 이제 보니 죄송하단 소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들이대네

다준 (대뜸) 그 누나, 잘 있죠?

‘이게 뭐 소리래?’ 멈칫하는 정빈

다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아란 자랑하던) 그 한정판 ‘샤넬 폰케이스’다!
정빈 ‘이게 무엇인가?’ 보다가 ‘땡강~’ 손가락을 떨어뜨린다

INS >> ‘파바바박~~’ 정빈의 머릿속에 편집되는 기억들

아란이 신상 핸드폰을 자랑하며 “한정판 ‘샤넬 폰케이스’ 넘 예쁘지?”

정빈과 아란이 밀애를 나누고 있는 교회(앞선) 바닥에 떨어진 아란의 핸드폰
불빛이 깜박이는

그들이 나가고 구석에 숨어있던 누군가... 그 핸드폰을 줍는다

핸드폰 앨범에 담겨 있는 앨범들이 펼쳐지면

정빈과 아란이 다양한 곳에서 나눈 사랑의 모습들이

때로는 달콤하고 낭만적으로, 때론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으로 담겨 있다

카메라 털업하면 핸드폰을 챙기는 누군가, 바로 다준이다!

55. 현우의 게임회사 사무실 (실내/오후)

화면 가득, 카메라 앨범의 다양한 사진들이 보인다.

황혼녘 울창한 대나무숲 옆의 고풍스런 떡갈비집에서 찍은 사진들

의외로 혜경이 찍힌 사진들이 많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현우

이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대한, 평소 답지 않게 머리는 산발이지만 정장 차림이다

대한 (살짝 비꼬는 투로) 어, 출근했네. 웬일이야?

현우 (대한의 차림을 보고) 형이야말로 웬일이야? 결혼식 갔다 왔어?

대한 남이야 어딜 갔다 왔든 니가 무슨 상관이야. 관심도 없으면서...

(현우 옆에 다가 앉으며) 그래 이번엔 또 뭘 찍어 오셨나?

대한, 핸드폰을 잡으려하자, 획~ 들어 피하는 현우

현우 어~ 왜 이래? 또 무슨 사고를 칠려구

대한 오호~ 이러니까 더 궁금해지네. 쥘봐

현우 안 돼. 이 형이 또 미쳤나~

핸드폰을 두고 욕신각신 하는 두 사람

그러나 결국 대한의 집요함과 힘에 핸드폰을 빼앗기는 현우

대한 뭐야, 이거... 요즘 이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야?

얼씨구~ 대나무숲도 갔어? 어디야 여기...? 좋네
현우 (화난) 일루 갖구 와. 빨리
대한 (웃으며) 야, 나한테 소개 톡 단단히 써야겠다. 내가 제대로 한 건 했네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 나름 괜찮다. 나이도 안 많아 보이고
현우 갖구 오라니까...
대한 (그럴줄 알았다는 듯이) 그래!! 못잇네~못잇네~하다가도
 결국엔, 과거의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지. 흐흠~그런거지
현우 (진짜 짜증난 얼굴) 혀잉~~~아니라구

현우, 더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무서운 얼굴로 대한에게 다가간다
 살벌함을 감지한 대한, 책상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피하며

대한 참, 아까 지혜 왔다 갔다.
 그말에 놀라 멈추는 현우

56. 초등학교 앞 (실외/오후)

차 안에서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을 (은밀히) 지켜보고 있는 정빈
 멀리 다준의 모습 보인다
 재빨리 차에서 내려, 쫓아가는 정빈
 다준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고 골목 안으로 따라 들어간다
 막다른 골목, 갑자기 사라지고 없는 다준
 이때, 핸드폰이 울린다

다준(필터) 저 찾아 오셨어요? 오늘도 멀리 오셨네요?
정빈 (혈압 올라 있는) 너 지금 어디야?
다준(필터) 오늘은 촬영 없어요?
정빈 (이성 잃고 막말) 야 이 악마 같은 자식아. 니가 날 헐박해?
 너 진짜 감빵가고 싶냐? 당장 그거 가지고 내 앞으로 튀어와!
다준(필터) 그거라뇨?
정빈 너 영아 영화 봤지? 영아가 눈도 깜짝 안 하고 사람 죽이는 거...
 그게 딱 영아 스타일이거덩. 연기가 아냐!
다준(필터) 지금 저 헐박하시는 거예요?
정빈 (골목에서 걸어 나오며) 알아들었으면 순순히 가져와
 너 입마, 계속 까불다간 아주 요절을 내버릴...

찍 벌어진 정빈의 입... 허걱!

주차한 자신의 차 옆 공중전화 부스... 그 안에 다준이 있다

오래된 구형 녹음기를 수화기에 대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다준

57. 첨단지구 고급레스토랑 (실내/해질녘)

럭셔리한 첨단지구의 고급 레스토랑

창가에 마주 앉은 다준과 정빈

먹음직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주변을 둘러보는 다준

정빈, 어이없는 눈으로 다준을 보는

정빈 그래,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지?

다준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왜 뽀뽀하는 걸 찍어놨어요?

정빈 (일말의 희망) 뽀뽀...하는 것만 있다?

다준 (당돌) 그냥 뽀뽀로 통일한 거예요. 뽀뽀가 참 여러 가지 던데요?

정빈 (절망하는) 말해. 원하는 게 뭐야?

다준 사천만원!

정빈 (놀라는) 사...사천?

다준 뭐 그렇게 놀라요? 하루 CF 찍고 몇 억씩 받는 사람이...

정빈 (억지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사천이면 돼?

다준 (코웃음) 아저씨 같으면 사천에 끝내겠어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다준을 쳐다보는 정빈

이때, 추가로 랍스터 요리가 다준 앞으로 나오고

다준 (ナイ프를 들며 알뜰게 어른처럼) 여기엔 화이트 와인이 어울린다던데...

음... 부드럽다. 아저씨 오늘 안바쁘시져? 스케줄 좀 짜보세요. 밥 먹고 어디 갈지?

다준의 당돌함에 두 손 두 발 다 든 정빈

INS >> 다준에 질질 끌려다니며 놀아주는 정빈

‘노래방에서 미친듯이 노는’, ‘캔디카메라박스’에서 재밌는 사진들을 찍는’ 다준과 정빈

58. 카페 (실내/저녁)

창밖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는 지혜의 모습 보인다

창가 쪽에 앉아, 기대에 부푼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현우
마주 앉은 두 사람

지혜 (싸늘하게) 너랑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니 인스타... 비밀번호 뭐야? 설마? 혹시 아직도 내 생일이니?

자신의 인스타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은근 기쁜 현우

현우 (조심스레) 내 비밀번호는 다 니 생일이잖아
지혜 지겹다 정말..., 다 내려. 안 그럼 내가 다 지울 거야
현우 왜 그래?

지혜 아님, 신고할까?

현우 당장 어찌자는 게 아니야

기억만 한다고... 난 단지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겠다고...

지혜 (짜증-) 뭘 기억해? 그리고 뭘 기다리냐구?

넌 아직도 내가 너 때때 이혼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현우 미안해. 내가 그래선 안 됐는데...

지혜 그러지 마. 너 때문 아냐. 기분 꼴꼴해서 전남친 불러내서 술 마시고 실수한
내가 문제지. 그리고 나 너 사랑 안 해. 사랑한 거 아냐
그냥 그날 좀 땡겼을 뿐이야. 옆에 니가 있었고 내가 많이 취해서
서로 원나잇 한 거야!!!

현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지혜 (쓴웃음 지으며) 사실이야. 니가 어떻게 생각하든 난 그때 그랬어

현우 지혜야, 내가 너 하루 이틀 아니? 너 결혼할 때도 그랬어
그렇게 모질게 하고 떠나놓곤 어쩔어? 결국 날 다시 찾아왔잖아
애쓰지 마. 다 보여. 괜히 맘에 없는 말로 나 상처 주면 너도 아프잖아

지혜, 진짜 화났다.

지혜 야! 몇번을 말해야 하는거니? 몇번을!! 아악~! 니가 더 잘 알면서!
제발! 제발 좀! 내가 부탁할게! 내가 사정할게!
제발 좀 그만해! 제발 좀 꺼져주라!!

그리곤 뺑하니 나가는 지혜

해머로 맞은 듯 멍하게 앉아있는 현우. 그때 울리는 전화

대한 (O.S) 현우야, 나 도저히 못참겠다 미안하다

지금 내행동이 용서받지 못할것이라 해도, 난 내선택이 옳다고 믿어
나 혼자만 살자고 이려는거 아냐, 가족들도 어떻게든 살려야하고...
니 자리도 마련해 놓을테니까
너무화내지마라, 연락할게

INS >> 현우의 게임회사 사무실 (실내/밤)

메인 컴퓨터 모니터에 ‘복사 진행중...91%’ 라는 화면이 보이고
늦은밤, 사무실에서 ‘아이스 스톱’ 게임 엔진을 복사하고 있는 대한
복사가 완료 된 외장하드를 들고, 한참을 고민하며 쳐다보는...
그리곤, 결심을 한듯 외장하드를 가방에 넣고 나간다

지혜한테 한방, 믿었던 대한에게 한방 더,
제대로 현타 두방을 맞은 현우 휘청하는데

59.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실내/저녁)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혜경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서도 혜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선 70대 손님

70대 손님 사장님 안 계시네?

혜경 제가 사장인데요

70대 손님 혹시... 사장님 따님인가?

혜경 네...

70대 손님 어쩐지 똑같이 생겼더라.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처음 생길 때부터 단골이거든
대를 이어 딸이 하는구나. 근데, 어머니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네
어머니한테 손맛 좀 더 배워야겠어.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진 말이지만, 오늘따라 왠지 가슴이 더 싸~해지는 기분...

혜경 (눈물 핁)돌아가셨어요

70대 손님 (놀라느-) 그...래? 아이구 미안하네.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또 봄세(하고 나가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손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혜경

60. 동 식당 앞 (실외/늦은밤)

술 취한 얼굴로 툄레툄레 걸어오는 현우

가만히 서서 가게한편의 형광색의 은은한 어항의 불빛과 열대어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내부 안쪽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간다

61. 동 식당 안 (실내/밤)

현우, 들어오면... 아무도 없고 한 구석 테이블 위에 소주병들이 얹어져 있다.

현우 저기여, 누구 계세요? (하며 술에 잔뜩 취한 채 비틀거리며 들어온다)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혜경, 반갑게 현우를 쳐다보는데
현우 오버하며 윙크를 하며 씨익~웃는다

현우 (혜경앞에 앉으며, 취해서) 제가 술을... 잘못먹는데, 보고싶어서 왔어요

혜경 (애가 왜이러지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 왜 무슨일 있었니?

나도 마침 한잔하는 중인데~같이 한잔 하자, 자 건배!!

주거니 받거니, 몇 순배의 잔들이 오가고 돌은 흠뻑 더 취해 가는데

혜경 (건배를 한후) 어, 근데 안주가 없네... 잠깐만 내가 가져오께(일어나려는데)

그런 혜경을 잡아 채며, 강렬하고 뜨거운 눈빛으로 혜경을 쳐다보다가

현우 누나, 여기있잖아요(하면서 순식간에 입술을 덤치면)

혜경 (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어... 이러면 안, 되는데...되는데...

하면서 더 뜨겁게 키스를 하기 시작한다. 필받은 혜경 더욱 대담해지고,

자기 겉옷을 벗으며 현우를 눕히려는데, 오히려 현우가 다시 혜경을 눕힌다

현우의 리드를 따라, 눈을 지긋이 감고 입술을 느끼는데, 갑자기 배를 세게 밟힌것처럼 아프다

혜경 아~아악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데) 헛 - 꿈.이다!!!

62. 동 식당 안 (실내/밤)

앞 씬의 사운드, 넘어오면서

어둑한 식당을 더듬더듬 들어오다가, 테이블 밑에서 대자로 뻗어 있던 혜경을 밟은 것

혜경 아아-악 (벌떡 일어나는데)

아픔에 벌떡 일어났다, 취한척 다시 쓰러지는 혜경(여러모로 넘 챙피하다) (시간경과)

혜경, 식탁에 팔을 괴고 눕듯, 기대듯 앉아 괴로운 듯 머리를 짚고 있다

자판기 커피, 박카스, 소주 등을 한 쟁반 가득 들고 오는 현우

커피에 박카스를 섞어서 마시는 혜경

현우 (의아해하며) 그러면 정말 술이 깨요?

혜경 속이 쓰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먹거든

현우 왜 이렇게 많이 드신 거예요?

혜경 엄마 생각나서... (또 가슴 싸~해지는)

현우야, 왜 우리 엄마 떡갈비집을 한 걸까?

현우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최고니까요!

혜경 최고? 최고라... 근데 왜 그 최고라는 비법을 남기지 않았을까?

현우 (원샷하고-) 글썩요... 사람 속을 누가 알겠어요?

더군다나 여자 속은 더 첩첩산중이구...

혜경 내가 좀 많이 울 엄마 못 살게 굴었어. 고기 비린내 난다고 어지간히 들어 댔거든

보다시피 우리 집 되게 후졌는데 육조는 좋거든? 왜냐,

나 땀에 맨날 씻고 또 씻어야 했으니까...

현우가 따른 소주에 박카스를 섞는

혜경 이거 울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술 마시면서, 동시에 피로까지 푼다고

맨날 이렇게 마셨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 아니냐? (피식)

현우 그럼, 이거... 소주에 박카스를 말았으니~이름이 '소박'이겠네? 소박(원샷) 맛있다~

혜경 (눈물 그렁그렁-) 같은 광주 하늘 아래 살면서... 주말에도 귀찮아서 가게에도 안오고

그랬거든.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엄마 죽기 전날 밤에도 반찬 가져가라는 거

괜히 신경질 내면서 전화를 끊었어. 가져가 봤자 버리기만 한다고...

엄마가 그렇게 아픈것도 모르고...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키워주셨는데...

나, 나쁜 딸 대회 나가면 당당히 일등 먹을거야 아마...

그렇게 잘 난 척 해놓고 이게 뭐야? 나 왜 이렇게 못 됐니? 못... 났니?

현우 (빠히 쳐다보다 우수꽝스럽게) 진짜... 못.났.다.

혜경 뭐야?

현우를 노려보다, 이내 ‘흐흐흐’ 울듯이 웃어버리는 혜경
따라 웃는 현우.

혜경 (대뜸) 현우야... 나, 니네 회사에 취직 좀 시켜주라

현우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저희 회사 구내식당 없는데...

커피라도 파시게요?

혜경 농담 아냐. 나 얼마 전까지 ‘SD소프트’ 디자인팀장이었어

‘고스트 필드’, ‘빵야빵야’... 그거 다 내 새끼들이야

현우 (의외라는 듯) 그래요? 그럼 민석이 형 아시겠네?

혜경 (놀라며) 니가... 그 새끼, 아니 그 인간을 어떻게 알아?

현우 학교 째~선배예요. (갑자기 생각난 듯, 웃으며) 아, 그러고 보니 그때...

나 누나 본 거 같아. 몇주 전쯤 민석이 형이랑 대판 싸웠죠?

맞아 그랬네!

혜경 (쪽 팔리다-) 거기 있던 게... 너였니?

현우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근데 어찌죠? 우리 회사 망했는데ㅠㅠ

혜경 먼 소리야? ‘아이스 스톱’, 어제도 했는데...

현우 (웁쌌) 그냥 서버만 열어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아이스 스톱’을 해요?

혜경 (실망하는 표정 지으며) 어... 나, ‘아이스 스톱’ 광 유저야

하루라도 그거 안 하면 잠이 안 올 정돈데

현우 (웃으며) 우와~ 그래요? 여기서 우리 게임 유저를 다 만나네. 기분 좋다

혜경 그럼 뭐야? 망한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거야? 그렇게 짹 짹 빠입고...?

현우 저희 사장 형... 쉽게 포기할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자금 마련해서 꼭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무실 지켜야죠.

혜경 (어이없어 헛웃음 치며) 허~ 도망간 사장 기다려, 떠나간 애인 기다려

아주 깡깡하구나~

현우 (피식~ 웃으며)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요. 제가... ㅎㅎ (시간 경과)

좌식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과 박카스병이 잔뜩 쌓여있고

취한 듯, 어느새 나란히 쓰러져 자고 있는 두 사람...

혜경, 술이 깨는지 천천히 눈을 뜨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잠든 현우의 숨소리에 사알짝~ 떨리면서 설렌다

조심스럽게 몸을 현우 쪽으로 돌리는 혜경

현우의 입술에 붙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떼어주려는데
움찔하는 현우의 입술이 너무 도톰해보인다
심장이 쿵쿵쿵... 전기가 짜르르~긴장하며 다가가는 혜경
천천히 몸을 다가가며 현우에게 살짝 입맞춤을 한다

“드라마<도깨비>처럼 시간이 멈춘듯 거꾸로 흐르는 시간과 이미지들”

촉촉하고 감미롭게 잠결인듯 꿈결인지, 입술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현우
두근두근 긴장한 혜경, 취한 듯, 빠진듯 살며시 현우의 위로 올라가서는
꽤 안깨 듯한 현우의 목덜미를 지나 입술에 진하게 키스를 하려는데
마치 기다렸다는듯... 현우가 달려들고
점점 뜨거워지면서 서로를 더욱 갈구하는 모습들이
은은한 형광 어항과 열대어들의 유영을 통해 더욱 감미롭고 사랑스럽게 보인다

63. 찜질방 (실내/오전~오후)

찜질방 내 PC방
양 모양 수건을 두르고 ‘아이스 스톰’ 게임을 하고 있는 슈렉
유려한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가볍게 상대를 제압하고 통쾌하게 웃는 슈렉 CUT TO

찜질방 안을 어슬렁거리는 슈렉
TV도 보고... 운동도 하고... 잡지도 보고... 잔다
핸드폰이 계속 울린다
발신자는 ‘킹재수 이정빈’ 이다. 슈렉 받지 않는다
배가 고파서 구운 계란을 먹고 있는데
또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번호를 확인하고는 받는

슈렉 (컱~ 목 막히는) 예에? 세탁소요?

64. 세탁소 앞 (실외/오후)

추리닝, 슬리퍼 차림에 정빈의 밉코트를 입고 나오는 슈렉
한 손에는 꾸깃꾸깃 접혀진 시나리오 책을 들고 있다
주인(O.S) 주머니에 이게 있었어요 CUT TO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시나리오를 읽고 있는 슈렉

점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다 뭔가 다짐한 듯 벌떡 일어서 걸으며 전화를 건다

슈렉 감독님 접니다. 슈렉입니다. 예 이정빈 매니저요

예... 예... 지금 좀 찾아뵙고 싶은데요

65.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안채 (실내/밤)

마우스를 만지작거리며 클릭하고 있는 혜경. 모니터에는 현우의 인스타

포스트에 ‘계정이 비활성화(휴업)’ 이미지가 떠있다

혜경, 창피하기도 축스럽기도 하여 망설이다가 디엠을 보낸다



좋았냐? (지운다) 난 어제 좋았는데... 넌?

혜경 (다시 재빨리 지우면서 혼자 성질) 미쳤어. 미쳤어. 어쩔려구.

지우고, 다시 쓴다



나 쉬운여자 아니거덩 (지운다) 바빠? 바쁜가? 바쁘겠지? 바쁘긴! 백수가?

다시 확 지운다. 혜경, 연애편지 쓰는 사춘기 소녀처럼 어쩔 줄 모르고 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카톡’이 크게 울린다

혜경 오마야!



누나. 내일 뭐 하세요? 같이 영화 보실래여, 아님 놀이공원 콜...?

66. 놀이공원 입구 (실외/낮) 말랑말랑데이트 몽타주(MV)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늘씬하고 섹시한 청바지 차림의 혜경의 슬로우 모션 발걸음이 보이고

현우 결눈질로 슬쩍 쳐다보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보는데 러블리하다. 렛츠고 출발

소리지르며 좋아하는 혜경과 겁먹은 현우의 바이킹타기, 워터스플래쉬, 챌린지파크 루지(여수)

스카이드롭에서 내리는 떡실신 현우, 또한 놀이동산 중앙에 있는 ‘캔디박스’에서 찍은 익살스럽고

사랑스러운 사진들, 둘만의 데이트 시간가는줄 모르고 서로 즐겁기만하다(대관람차 나이트썬)

67. 첨단지구 분위기 좋은 요리주점 (실내/밤)

화기애애하게 술을 마시는 두 사람

적당히 취한 듯 불이 발갱게 피어 오른 게

첫 키스 후의 긴장감과 서로에 대한 풋풋함 배어나오는 기분좋은 자리다

그때, 입구쪽에 시선이 고정된 채 갑자기 경직되어가는 현우

혜경 (현우의 시선이 닿는곳을 돌아보며) 왜 아는 사람이야?

현우 (당황하며) 아 그게... 사실 여기가 옛날부터 단골집인데...

혜경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있는 현우

입구쪽에 친구들과 온 지혜에게 온 신경이 곤두서있다

혜경, 직감적으로 알아채고는 표정이 싸해진다

현우 (머뭇거리다가 혜경의 빈잔을 보고) 한잔 더 시킬까요?

혜경 아니, 난 그만 먹을래, 내가 비위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너는 어떻게 여길 나랑 올생각을 하니?

현우 (당황해서) 아, 그게여 여기가 인테리어도 이쁘고... 핫플이어서...

혜경, 그말에 표정이 더 일그러지며

혜경 그래?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것도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겠네?

내가 일어나 줄까? 사진찍기 걸리적거릴 테니까

현우 네? 그런 거 아닌 데...갑자기 왜그러세요? 누난 꼭 화 난 사람 같아여

혜경 (속사포처럼 화가나서)같은 게 아니라 화났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네가 지금 하는 그 해바라기 짓,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감동일지 몰라도 옆에서 보면 짜증

지대로야. 나도 여잔데 여자 얹혀 두고 계속 이러는거, 너처럼 사랑이 평생 한번 뿐일

것처럼 구는 거, 그건 더 짜증이구!!

내가 연애한 지, 췌까 오래돼서 감이 좀 떨어져서 어찌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만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하자면~

지구상에서 췌로 오래 사신, 그 자랑스러운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가 장수의 비결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어? 부디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추억으로 간직하며 웃으며

사는거다, 라고 하셨어!! 니혼자 잘난척! 로맨티스트인척! 모든기억을 다 꾸역꾸역 쟁겨 넣고 살지마

그러다가 일찍 되져!!!

혜경, 남은 현우잔의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획- 하니 일어나 나간다

현우, 따라 나가지만 재빠른 혜경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한다

68. 정빈의 소속사 사무실 (실내/오후)

가방을 맨 다준이 두리번거린다.

순간 카메라를 들이대는 매니저들

경찰서에서의 무차별 플래시가 떠오른 다준, 얼굴을 찡그린다
안에서 나오는 정빈
다준에게 ‘장학금 40,000,000원’이라고 새겨진 요란한 피켓을 들려주는 매니저
다준과 정빈을 나란히 세워두고 촬영을 한다

다준 이러는 게 어딴어요?

정빈 (찡그리다 웃는-) 웃어, 임마... 웃어. (속삭인다) 그런 거금을 썩으로 갈취당하는데
영아도 뭐 하나 얻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냐. 안 그래?

다준 (헐~) 어쨌든... 고마워요

정빈 닥치고 물건이나 내놔. (카메라 의식하고) 지금 말고...

그 순간, 정빈의 핸드폰이 울린다. 전화를 다준에게 바꿔주는데
잠시 통화를 하던 다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전화기를 떨어뜨린다

69. 거리 (실외/오후)

세차게 매몰차게 내리는 비

비를 맞으며 어딘가를 향해 숨이 끊어져라 달리고 있는 다준

아니우는 척이라도 하려는듯이 옷소매로 자꾸 눈을 훔치는데... 울고, 또 울고 달리는 다준.

계속 달리는 다준의 다리 CUT TO

INS >> 같은시각, 다른장소

그 반대방향으로 비를맞으며 하염없이 걷고있는 혜경, 비인지 눈물인지 그 또한 더 처량하다

70.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앞 / 동 안채 (실내/밤)

비를 맞으며 터벅터벅 식당앞으로 돌아온 혜경

가만히 서서 오래된 입간판과 입구쪽 은은한 형광어항과 열대어들의 움직임을 아련히 바라본다

CUT TO

‘쿠쿵~’ 천둥까지 치며 내리는 빗소리가 들리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운 혜경

자세히 보면, 한쪽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으로 계속 울리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다

문득 혜경의 시선에, 창틀에서 똑~똑~ 하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놀라며 벌떡 일어나는 혜경

한쪽 구석에 치워둔 엄마의 유품 상자가 다 젖어가고 있다

얼른 물건들을 꺼내서 닦는 혜경

촌스런 악어핸드백, 포장된 채로 아껴둔 스카프, 화장품들까지 다 젖었다
수첩과 가계부, 앨범, 엄마가 아파서 먹던 약통, 등도 엉망이 되어가고
급히 치우던 중, 액자에 물이 스며들어 얼룩이 살짝 번진 한 사진에 시선이 머문다
어느 사진관에서 중학교 교복 입은 혜경이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혜경은 상장을, 엄마는 혜경이 탄 트로피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다)
애잔한 표정이 되는 혜경

71. 혜경의 회상 / 중학교 복도 (실내/오후)

학교 복도를 걸어오는 혜경
신경 써서 입은 외출복 차림과 새로 한 파마머리가 더 촌스럽다.
엄마를 보자 짜증부터 내는 중학생 혜경

어린 혜경 머리가 그게 뭐야?

혜경모 (머리를 만지며) 왜? 이상해? 2만 원이나 주고 한 건데...

어린 혜경 (엄마 손의 박카스 상자를 보고) 엄마는 맨날 박카스야?

가게에 있는 거 들고 왔지? 오렌지 주스 같은 걸 사와야지

혜경, 입 삐죽 내민 채로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72. 혜경의 회상 / 동 교무실 (실내/오후)

담임선생님과 면담 중인 혜경
상장과 트로피를 안고 있는 중학생 혜경, 사생대회 입선이다

선생님 지난번엔 어머님 덕분에 배 터지게 회식했습니다

혜경모 자주 좀 오시라니까, 호호~

선생님 혜경인 그림도 잘 그려, 공부도 잘해, 엄마 닮아서 요리도 잘하겠네?

혜경은 이런 자리가 싫다, 억지로 웃는 혜경

혜경모 (펼쩍 뛰는-) 선생님 무슨 클 날 말씀... 음식 장사는 장사하다 맨 나중에
하는 거라요~

우리 혜경인 그런 거 안 시킬라고 집에선 라면도 못 끓이게 하는데...

우리 혜경인 세계적으로 이름난 디자이너가 될 거라는데요, 그치?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샤...네르... 뭐라고 했는데...

톤이 높은 엄마의 목소리가 창피한 혜경

어린 혜경 (작은 목소리로-) 샤넬... 코코 샤넬...

혜경모 (흐뭇하다) 우리 혜경이가 아는 게 참 많아요.호호호.

웃으며 선생님 앞으로 박카스를 따서 슬쩍 건네는 혜경모

혜경모 피로 푸는 덴 역시 이거만한 게 있나요?

저는 하루에 요거 한 박스 다 먹어요, 호호호호~

73. 혜경의 회상 / 태양사진관 (실내/오후)

이때는 제법 멀쩡했던 다준이네 태양사진관...!

사진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녀

어린 혜경 무슨 사진을 찍는다고 난리야. 싫어~

혜경모 오늘 같은 날 한 장 박지 언제 박냐? 미용실 갔다 온 본전은 뽑아야지

투덜거리며 끌려 들어가는 혜경...

사진관안쪽 한쪽 벽면에 걸린 ‘비상계엄 즉각해제하라’머리띠의 5.18학생들(혜경부)사진을 바라보며 발을 멈추고 눈가가 축축해지는 혜경모(5.18이후 홀로키운) 못본척 무심히 지나간다

CUT TO

지금은 치매로 누워 있는 (앞썸의) 다준 할아버지가

(과거)뺨모자를 쓴 정정하고 멋진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준다

쑥스러워하면서도 결국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는 모녀

74. 다시 식당 안채 (실내/저녁)

바래고 얼룩진 사진을 바라보며, ‘어~어영~~’ 서럽게 울음을 터트리는 혜경

그때, 옆으로 툭 떨어지는 ‘5.18 아빠사진(머리띠한채 엄마와 찍은)’ 을 집어들으며 더 눈물이 난다.

외로움과 서글픔의,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어엄~마” “아빠~아”

창밖 빗소리와 함께 혜경의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린다

구석엔, 아직도 울리는 혜경폰의 진동

75. 동 식당 앞 (실외/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가게 앞에서 비를 맞으며 안절부절 전화를 걸고있는 현우

답.답.하.다.

76. 재개발 철거촌 (실외/오전)

철거촌 입구에 서는 정빈의 차

내려서 주위를 살피는 정빈, 화가 잔뜩 나 있다

77. 태양사진관 앞 (실외/오전)

사진관 앞에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다준

정빈, 달려가 다준의 멍살을 잡으며

정빈 너 이 새끼, 귀엽게 봐주려고 했더니

너 거래가 뭔지 알아?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야. 돈만 받고 날러?

불쑥 주머니에서 아란의 그 핸드폰을 꺼내 정빈에게 내미는 다준

재빨리 핸드폰을 확인하는,

정빈 (놀라는) 이년 이거, 미친 거 아냐? 다 찍었네, 다 찍었어.

(챙기고) 너 그 돈, 영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주는 거야, 알아?

정빈에게 흰 봉투를 내미는 다준.

정빈 (경계한다) 뭐야?

다준 이제 재미없어졌어요.

78.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안채)/ 마당 (실외/오전)

뺨~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

마당 가득히 널려 있는 혜경의 유품 상자 속 유품들

오랜만에 기분 좋아 보이는 혜경,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는다

이때, 뒤에서 들리는,

나주댁(O.S) 저기... 혜경아, 이야기 좀 할 수 있니?

돌아보면, **나주댁** 서 있다

혜경 (몸을 일으키며) 네 아줌마...

CUT TO

식당에 나란히 마주앉은 두 사람...

나주댁 (어렵게 입을 떼는-) 저기... 어차피 혜경이 너 마음 못 잡고 이럴 거

이 식당... 내가 맡아서 하면 안 될까?

혜경 (의아한 듯) 지금도... 그리고 계시잖아요

나주댁 그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당장 이걸 살 형편은 안 돼

아니 나 죽을 때까지 일해 모아도 이거 못 사
 근데... 요 며칠 장사되는 거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 자신감도 생기구...
 무엇보다도, 엄마가 35년 넘게 비가오나 눈이오나 손부르터가면서 전통방식 고수하면서
 어떻게 지켜온 원조집인데,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걸 지켜나가는것 도리인것같고...
 그래서 말인데... 이 식당, 나한테 세 주라
 사실 나 당장 보증금 줄 돈도 없어. 그래도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해서... 다달이 세는 꼭 맞춰줄게. (애절한 눈빛으로) 안 돼?
 너무 염치없는 부탁인가?

뜻밖의 제안에 놀라 멍뚱멍뚱 나주댁을 쳐다보는 혜경

79. 정빈의 오피스텔 (실내/오전)

상의도 입지 않고 침대에 뺨어 자고 있는 정빈, 핸드폰이 울린다.

정빈 (잠이 덜 깬 채로) 야~! 매니저~! 슈렉~~!

(슈렉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핸드폰을 받는) 여보세요.

미애(필터) 이정빈 씨 핸드폰이죠? 안녕하세요, 저 박미애입니다

다준이 담당 복지사요. 다준이가...

정빈 (잠 깬다) 그 이름 좀 말하지 마요. 왜 전화했어요? 돈 도로 달래요?

미애(필터) 다준이한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빈 잠깐, 잠깐... 끊지 말고... 왜 했는데요, 그럼?

80. 태양사진관 (실내/오전)

장롱 앞에 다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방에서 옷가지를 챙기는 다준, 낡은 여행 가방에 짐을 싣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곱게 신문지로 싸는...

옆에서 그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미애

그 위로 흐르는 **미애(OFF SOUND)**

미애(필터) 다준인 그 돈으로 아픈 할아버질...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싶어 했어요

예약까지 했었는데... 어쩔 할아버진 누워서도 다준이 맘을 알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떠나셨는지도 몰라요 “죄송했습니다” 라고

다준이가 꼭 전해달래요

다준 (미애에게서 등 돌리고 앉아) 잠깐만 나가 주실래요?

미애 내가 도와줄게

다준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저 속옷 챙겨야 하거든요

다준의 뒷모습을 보다 밖으로 나가는 미애, 문을 닫기 전 다준을 돌아본다
신문지로 찢던 사진을 다시 꺼내는 다준...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한다
꼭꼭... 울음을 참아보다 참아보다, 점점... 사진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다준

다준 (서럽게 운다) 할아버지... 진짜 나빠... 진짜 나빠...

이럼 엄마, 아빠하고 뭐가 달라. 나빠...엉엉~

뛰어 들어와 다준을 끌어안는 미애

미애의 품에 안겨 더 크게 우는 다준

다준 저, 무서워요. 감옥 가는 줄 알고 무서웠어요, 아무도 없어서 무섭구요.

어젯밤엔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흑흑~~

미애 그게 맞아... 무서운 게 당연한 거야. 다준아... 무서워해도 돼...

누구나 무서운 거야

81. 고아원 앞 (실외/오후)

미애의 차가 고아원 앞에 서 있다

책가방에,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다준

그 앞에 쪼그려 앉은

미애 다준아, 꼭 안 가도 돼. 선생님이랑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응?

마치 다 큰 남자인 양

다준 (태연한 척) 괜찮아요. 저, 누구한테 짐 되는 거... 싫어요

미애 (미안해하며) 짐 되다니... 절대 아니야

다준 유튜브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다 어릴 때 이런 데서

힘든 시절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갈게요

(쿨하게) 인사하고 뚜벅뚜벅 고아원을 향해 걸어가는 다준

미애, 일어서 따라가려 하지만...다준 고개를 저으며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

한참을 걷다가 천천히 미애를 돌아보는 다준, 웃으며 손을 흔들다

눈물을 흘리고 마는 미애

그렇게, 의젓하게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다준의 뒷모습을 쳐다본다

82. 영화사 회의실 (실내/오후)

정빈의 새 영화 <영웅변색> 리딩이 있는 회의실이다.

들어온 정빈, 창밖을 보고 있는 남자를 유심히 본다... 슈렉이다!

다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정빈

정빈 이럴 줄 알았어. 니가 가진 어딜 가... 빨리 밉크코트 안 갖고 와?

슈렉 야, 나도... 배우거든

정빈 (무슨 뜯금없는) 배우긴 멀... 배워?

어이없다는 듯 슈렉이 정빈을 찌러본다

CUT TO

감독과 배우들이 리딩 중이다

정빈 맞은편에,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슈렉이 있다

서먹하지만 정빈을 향해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리딩하는 슈렉

그런 슈렉을 향해 피식~하더니 역시 같은 씩소를 날리는 정빈

83. 납골당 (실내/오후)

엄마의 납골당 앞에 선 혜경, 유골함 앞에는 ‘아빠와 함께찍은 5.18 그사진’이 보인다

소주에 박카스를 가득 타서 (소박)한잔을 타서 놓는다

혜경 엄마, 나 식당은 아줌마한테 맡겼어. 잘했지? 그러라고 엄마가 나 요리 비법 일부러 안 가르쳐

준거였잖아. 나 원하는 거 하고 살라고...

이제야 그 뜻을 알아 차렸네... 근데, 여기 너무 썰렁하다

그래도 아주 젊고 잘생긴, 나는 얼굴도 못본 아빠랑 있으니까 좋지?

근데, 나만 혼자라서 엄마가 넘 보고싶은걸...그래서 내가 따뜻한 집 하나 마련했거든

엄마가 와봤으면 좋겠는데...그게 될까?

주소 알려줄까? 잘 적어. 인스타에 와서, 소박맘(sobacmom)치른 되거든

84. 현우의 게임회사 사무실 (실내/오후)

화면 가득 보이는 인스타 검색창에 (타타타닥)혜경이 말하는 대로 쳐지고,

<소박맘>라는 제목의 인스타가 열린다



사랑해 엄마~@@, 거긴 행복한가여? 소박한잔 하실까요 ^^

혜경이 직접 디자인한 다양한 떡갈비 캐릭터들로 꾸며진 인스타에는
그 동안 혜경이 사진으로 찍어 정리한 엄마의 유품들
엄마가 좋아했던 박카스, 좋아했던 조용필 테이프와 CD들, 차마못버린 싫어했던 세금고지서
혜경의 대학 합격통지서, 배냇저고리, 처녀 시절의 곱던 모습을 담은 낡은 사진까지...
엄마의 추억이 차곡차곡 담겨있는 그녀의 아지트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혜경의 인스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현우
오래 둘러보며 한참 고민을 하더니 ‘잘 계시지요? 하며, 혜경에 디엠을 슬쩍 보내는데
‘땡땡’알림에 현우의 디엠이 보이지만, 대답하지 않고 노트북을 조용히 닫아버리는 혜경

85. 현우 혜경의 따로따로 몽타주

‘화정원조떡갈비’ 안채 (실내/밤) >>

온 방을 어지르며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 혜경
바닥이며 벽에는 그녀가 그동안 작업했던 수많은 게임 캐릭터 컨셉 디자인들이 보인다
그러다가 문득
작업지들 속에서 현우와 함께했던 메모와 폴라로이드 사진들에 시선이 멎으며 멎해지는 혜경

현우의 게임회사 사무실 (실내/밤) >>

새로운 메타버스 게임을 만들며 일에 매진한 듯 보이는 현우
진지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작업 중이다
그러다가 문득, 혜경과 함께 했던 사진폴더를 연채 멎하니 보고있는 현우, 너무 답답하다

‘화정원조떡갈비’ 앞 (실내/오후) >>

단정한 수트 차림에 포트폴리오 파일을 팔에 낀 혜경
나주댁과 아줌마들의 걱리를 받으며 비장한 각오로 거리로 나선다

창투사 (실내/오후) >>

(소박مام의 인스타를 장식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떡갈비와 떡방아 캐릭터가 날라다니며
자신을 공격하는 인스턴트푸드 이미지들을 제압하는
뽕망치 게임 프로토타입이 프로젝트로 영사되고 있고
간간해 보이는 양복쟁이 투자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현우

어느 게임회사 (실내/오후) >>

입사지원서를 살피며 이것저것 질문하는 면접관 임원
PPT로 포트폴리오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혜경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임원

다른 창투사(실내/오후) >>

다른 날, 다른 창투사에서 새로운 게임 시안을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현우

다른 게임회사(실내/오후) >>

다른 날, 다른 게임회사에서 더 열정적으로 면접을 보고 있는 혜경

아시아문화광장 앞 (실외/저녁) >>

예전 현우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그 장소

혜경,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현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인지...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다

86. 세차장 (실외/저녁)

<영웅본색> 촬영장

허름한 옷에 다리까지 절면서 세차를 하는 정빈... 영웅본색의 주윤발처럼

모지란 캐릭터 연기가 일품이다

이때, 깡패들이 들어온다

밍크코트 입은 보스... 다름아닌, 슈렉이다!

정빈의 밉코트를 휘날리며 다가와 무지막지하게 정빈을 괴롭히는 슈렉

그의 연기... 역시 압권이다!

슈렉 (정빈을 발로 짓이기며) 이 새끼, 이럴거면 사람으로 태어나질 말았어야지, 응?

모니터를 보던 감독의 오케이 싸인이 떨어진다

그 순간 벌떡 일어나는 정빈

살기를 느낀 슈렉, 슬쩍 도망친다

정빈 (쫓으며) 미쳤지? 미쳤지, 너? 너 아직 내 매니저야! 거기 안 서!

슈렉 (도망치며) 연기야, 정빈아... 연기였다고!!

촬영장을 누비는 정빈과 슈렉의 추격전에 웃는 스태프들

그 순간 모니터를 보고 촬영감독과 얘기하던 감독이 연기가 좀 아쉬운듯 소리친다

감독 미안하지만, 한 번 더 갑시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정빈, (혈)겁나 울상이다
슈렉, 고개를 돌리며 킁~킁~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는다
슈렉의 킁킁대는 웃음소리는 여자의 밝은 웃음소리로 이어진다

87. 미애의 집 (실내/저녁)

핸드폰을 보며 하하하~. 웃고있는 미애
보면, 인스타 추천에 오른 ‘떡(뽕)망치 프로젝트’ 라는 제목의 릴스
경쾌한 음악과 함께 MV

- ‘한컴 아즈메타’의 메인광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이미지들~
휴먼메타 기술로 다시 재현된 현우의 뉴메타 ‘사과 3종 세트’를 시작으로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휴먼메타 혜경의 얼굴을 가진 귀여운 떡갈비 캐릭터도 보이고
휴먼메타현우가 오버스러운 제스처 - 자동차 트렁크에다 풍선을 잔뜩 집어넣었다 날리고
창문 아래서 꽃다발 들고 노래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 이미지들이 보이고
떡(뽕)망치 합성한 혜경의 얼굴이 확~밝아져 방긋거리는 모습이 재미있게 편집된 영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3년 12월 24일 Pm 6시, 처음만난 그곳에서 기다릴게요^^’ 라는
자막이 떴다 사라지며 마무리된다!

88. 송정리 ‘화정 원조떡갈비’ 안채 (실내/밤)

한참 작업을 하며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혜경, 피곤함에 잠시 기지개를 펴고는
오랫만에, 궁금함에, 기다림에 조심스럽게 살짝 현우의 인스타를 누르는데

오호, 완전히 새 단장한 현우의 인스타...!
예전 지혜와의 추억으로 도배되어 있던 포스팅들이 모두 사라지고...
타이틀도 < 떡망치를 사랑하고픈 동키호테 >로 바뀌어 있다
더욱 놀라운 건... 언제 찍었는지 어스름한 새벽부터 늦은 밤, 불이 꺼질 때까지
다양한 시간대의 화정떡갈비 식당 외경, 같이간 떡갈비집 사진들, 놀이공원 등
짧았지만 행복했었던 그 동안의 다양한 데이트에서 찍은 혜경의 사진들이
‘내가 사랑하게 된 것들... 에피소드 ep #01, #02, #03...’ 라는 제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4일 Pm 6시, 처음만난 그곳에서 기다릴게요^^’ 라는 자막에
왠지 알수없는 기대감 혹은하는 마음에 살짝 설레기 시작하는데
이런게 사랑하는 마음인걸까? 머리가 영킨 것처럼 방안을 이리 뒹굴 저리뒹굴 하는 혜경

89. 혜경의 퇴근길 / 지혜 회사인근 카페 (실외/저녁)

전화 통화를 하며 걷던 혜경, 우연히 저멀리 카페이 앉아있는 현우를 발견한다

모처럼의 운명같은? 만남에, 어찌해야하나 하다가 용기내서 다가가려는 데
한쪽에서 지혜가 나타나 현우 맞은편에 앉는다

지혜 다신 보지 말자고했잖아

현우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어서

그리곤, 예전에 ‘홍차왕자’에서 주려던 그 반지를 꺼내놓는다. 의아해하는 지혜

현우 니가버려, 아님 녹이든지... 나도 이제 주인공 할거니까

지혜 (미소지으며) 첩이다. 니가 내예상 벗어나는 거...이제, 좋은 사람이 생긴거같네
쿨하게 반지를 받는 지혜

그 모습이 멀리서 보았을 때는 마치 현우가 ‘프로포즈’ 하는 듯이 보여진다

힘이 빠진듯 들고있던 테이크아웃 커피를 떨어트리고, 확 뒤돌아서 가버리는 혜경

90. 고아원 운동장 (실외/오후)

작은 운동장을 무식하게 뛰어다니는 슈렉

우르르~ 슈렉을 따라 아이들이 함께 축구를 하고 있다

그런 슈렉을 보며 쫓쫓 혀를 차는 정빈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인을 하고 있다

그러다 노트를 옆에 두고 나무 아래에 기대 눕는 정빈

날씨가 참 좋다!

다준 이럴 줄 알았어요

정빈 (눈을 뜨고 다준을 올려보며) 뭘~?

다준 과자랑 라면 같은 거 사들고 와서 생색낼 줄 알았다고요

정빈 예리한 자식...

나무 아래에 나란히 기대 앉아 있는 두 사람

정빈 뭐 필요한 건 없고?

다준 (하늘 보며) 비행기...

정빈 (다준을 보고 눈을 깜박거린다)...(순간) 헛...이건 또 머지?

다준 안 돼요? (비행기 태우는 시늉하며) 겨우 이거도 안 돼요?

정빈 (십년감수했다!) 넌... 충분히 진짜 비행기를 사달라고 할 놈이라서

긴장했다, 너 이제 계속 여기서 사는 거지? 열여덟까지...?

다준 왜요?

정빈 뭐 그때까진 사고 안 치겠구나, 싫어서...

다준, 정빈을 쳐다보자 시선을 피하는 정빈...
이때, 먼지를 푹푹 날리며 방송국 차량이 들어온다
내리는 촬영팀

정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많이 해봤으니까. 지난번거 A/S라고 생각해라

다준 (기가 막히다) 헐.....

정빈 축구부터 해야 되나?

간지나게 옷통을 벗고 운동장으로 오버하며 뛰어나가는 정빈
정빈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촬영을하는 촬영

정빈 너두 벗어, 입마~

다준 (짹짹한 날씨를 보며) 축구하기 싫은데...

정빈을 따라 나서는 다준, 자신도 옷통을 벗는다
정빈, 다준을 돌아보더니 번쩍 들어올린다
몸을 휘휘 돌려 비행기를 태우는 정빈

정빈 넌 비행기 어떤 거 타봤는데? 이 영아 낀... 겁나 빠른 제트기다!!

정빈의 두손에 의지해 몸이 떠 있는 다준
파란 하늘이 돈다
연기인지, 실제인지... 정빈이도, 다준이도 입가에 처음으로 천진난만한 아이의 행복한 웃음이 핀다

91. 문화전당역 5번출구 아시아문화광장 (실외/저녁)

딱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울리는 음악이 선행되며~

이브날인 만큼 들뜬 사람들과 부등켜 안고 다니는 커플들이 유난히 많은 퇴근길

혜경은 여느날처럼 덤덤하게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데

‘땡땡’ 울리며 올려지는 5번출구 폴사인뒷편의 ‘예쁜 조명등으로 멋진 만남의 광장’사진

머지? 호기심반 기대반으로 그쪽으로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다시 ‘땡땡’ 울리며 올려지는 ‘화살표같은 유도선이 찍힌’ 사진, 다시 따라가는 혜경

‘땡땡’ 이번에는 ‘옥외 에스컬레이터’ 다음엔 ‘에스컬레이터 천정의 무빙 영상LED 이미지’

다시 ‘땡땡’ 하면 ‘하늘정원 앞 옥외 전광판’ 그리고 ‘루미나리에 조명가득한 하늘마당’사진

사진이 이끄는대로 하늘마당앞에 도착한 혜경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히 아는사람은 없다

그때,

전광판 영상 - 캐롤을 신나게 부르는 아이돌 ‘머스트비’ 그런데 갑자기 “스톱” 하고 노래를 멈추는 한사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데, 콧수염이 분장의 한남자가 앞으로 쭈욱 나오며

외부 관객들에게 대화하듯이 말할건다 (외부로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가 있는 전광판)

현우 저기여, 거기 이해경씨 잠깐만요

혜경 (얼덜결에 뒤돌며) 네에 누구세요? (누구지하는데 아무도 없다)

하늘공원 앞에서 삼삼오오 둘러서서 공연을 즐기던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전광판 남자와 혜경을 보는데, 웅성웅성 사람들이 혜경을 알아본듯 서로 수군거린다

혜경은 이들을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라퐁젤)혜경은 이미 유명인사인 듯...!

갑작스러운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혜경, 돌아서 가려는데

현우 (콧수염을 떼며)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자리에서 계속

혜경 (긴가민가) 네에? 갑자기? 거기서요?

‘와우~오우~’ 먼가를 기대하며 탄성을 내는 사람들...숨죽이며 이들을 쳐다보는데

현우 오늘 못하면 영원히 못할것 같아서요

혜경 (약간감동받은듯)저는 잘 모르겠는데여...혹시 다른사람 착각하신건 아닌가요?

전광판 영상안의 현우와 전광판 앞 혜경의 대화가 짜맞춘 듯 정확히 맞아가는게 신기한 사람들

아랑곳하지않고 혜경 돌아서려는데

현우 아니요 당신맞아요 가지마세여, 잠깐만 거기서 기다려바요!!

하더니 밴드뒷편 화면밖으로 나가버리는 현우

머하는거지? 하면서 다시 서서히 돌아서는데

사람들의 박수와 함성이 들리면서 큰 전광판과 에스컬레이터위의 영상LED가 온통 꽃으로 바뀌면서

현우가 예쁜 꽃다발을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크레인으로 다가오듯이 혜경을 향해 다가온다

주위의 사람들, 약속이나 한 듯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 길을 내주고

홍해처럼 갈라진 사람들 사이로 뚜벅뚜벅 걸어 혜경에게로 다가가는 현우

드디어 마주 선 두 사람...!

현우 (미소 지으며) 진심으로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런느낌 처음인듯~ 감동받은 듯, 눈을 지긋이 감는가 싶은 혜경, 그러나
갑자기, (며칠전 지혜반지 목격 오해가 생각나서)다짜고짜 현우의 뺨을 후려 갈긴다. ‘ 짹~’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는 사람들
현우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혜경을 쳐다본다

혜경 (감동은 커녕)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니?

내가 이딴 걸로 감동 먹고 확~ 안길 줄 알았어?

현우 아... 그...게 아니라...

혜경 사람 감정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힐끗 쳐다보곤) 쪽 팔리게...

하고 확~ 돌아서 가는 혜경...

현우, 멍하니 서 있다 역시나 쪽 팔린지 사람들을 힐끗 쳐다보고는
달려가 혜경을 붙잡는다

현우 이러는 게 어딴데요? 여기까지 왔으면 내 마음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혜경 (뿌리치며) 놔.

현우 (더 세게 붙잡는-) 안 놔요. 절대로 못 놔요

(가슴을 소리나게 막치며) 누나가 이렇게... 내마음... 깊이...있는데...

그럼 난, 어.떡.하.라.고.여...

고백에 맞추어 전광판에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 글자와 하트가 무수히 새겨진
글썩하고 진지한 현우의 고백에, 진심 몽클하며 현우를 쳐다보는 혜경
숨을 죽이며 두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들
서로마주보고 망설이는 뜨거운 눈빛... 눈이 부시게 서로를 너무나도 갈구하는듯 하다
이를 눈치챈 전광판속의 아이돌 ‘머스트비’ 천천히 신나는 크리스마스캐롤을 다시 시작하고
기회를 놓칠세라
현우, 덤석 혜경을 끌어안으며 키스를 한다... 부드럽고 박력 있고 강하게, 나름 많이 멋지다!
거부하지 않는 혜경, 감미로움에 살짝 더 다가선다

‘와아~오우~~’ 축하의 탄성을 내지르며 박수를 치며 축하하는 사람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연인의 모습 풋풋하고 사랑스럽다
루미나리에 앞에있던 구세군의 종소리와
옆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부르는 꼬마 천사합창단의 노래가 더욱 분위기를 돋운다
카메라는 주욱 빠지고 돌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며 그들과 도심의 불빛들을 담아낸다
저멀리 도심벽면의 네온사인 ‘Have a ^^ day’ 가 유난히 돋보인다

92. 에필로그 몽타주

앞 씬의 크리스마스 캐롤 계속 되며~
인스타 화면과 현실이 번갈아 편집되어 보여진다
현우의 인스타...이제는 < 떡(뽕)망치를 사랑한 동키호테 >
점점 다양해지는 피드들 ‘#내눈에 #콩깍지... ep.37’ 이라는 제목의,
다양한 각도와 시간대의 그들의 사진, 새로운 게임, 원조떡갈비 식당 외경 등등... 늘어만 간다.
그 아래 달리는 댓글...



안티떡갈비 : 너무 떡갈비?만 좋아하시는건 아니져? 너무 누구? 보라고 만드시는듯, 속보인ですよ ^^

현우의 게임회사(실내/오후) >>

댓글을 남긴 혜경, 웃으며 고개 돌리면
현우, 대한이 작업하는 컴퓨터 앞에서 진지하게 이야기 중이다.
일명 ‘떡(뽕)망치 전투(blue Tteok-galbi battle)’ 게임을 개발 중인 현우의 게임회사
벽면엔 온통 다양한 떡갈비와 망치 방패 캐릭터 도안 천지다!

자신의 인스타로 들어가는 혜경
혜경의 인스타 <소박맘> 메인 포스팅엔
‘#떡갈비배틀 #동키호테 #일편단심 #멜로와 로망스’ 라는 댓글과
미애가 찍은 (앞씬의) 혜경과 현우의 키스 장면 동영상 포스팅되어 있다
혜경, 피식~ 웃으면

INS >> 건물 옥상(실외/오후)

<영웅변색> 또 다른 촬영장
옥상 난간에서 무지막지하게 정빈을 때리고 차고 짓이기는 슈렉
정빈, 눈물 줄줄~ 콧물 질질 ~ 흘리며 감동적인 명연기를 보여준다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내려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연기에 몰입해 있는 정빈
슈렉, 미안해하며 정빈을 달래보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는...정빈

위 장면이 인스타에 올려진 동영상으로 보여진다

정빈의 인스타... < 이정빈의 '영웅변색' 촬영일기 >

그 아래, 정빈의 명언기를 칭송하는 수많은 댓글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안티 글



**미스터라면왕 : 짜식~ 연기 좀 늘었구나. 근데 혀 짧은 건 여전하네 ㅋㅋ
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ㅋㅋ**

댓글 '미스터라면왕' 을 클릭하면

'이모꽃게 물어라면' 간판에서 카메라 툄다운하면서 카메라 가게안으로 들어가면

꽃게가 그려진 앞치마를 두른 미애가 먹음직스러운 꽃게라면을 끓여오고

다준을 중심으로 정빈과 슈렉, 현우와 혜경이 라면의 환상적인 맛에 다들 웃고 즐기며 행복해한다



입맛가출이모 : 싸부님 ~오늘, 드디어 인생 척오의 꽃게라면을 만들었사옵니다!!

그 아래 달리는 댓글



미스터라면왕 : (은둔고수 도인 톤) 더이상 가르칠게 없느니라~하산하거라!!

INS >> 고아원 (실내/저녁)

댓글을 쓰며, 씨익~웃고 있는 이, 다준이다

다시 현우의 인스타...!!

마지막까지 한구석에 남아있던 포스팅

떨어져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애잔히 바라보는 쓸쓸한 남자의 뒷모습 사진에서

'두 사람이 꼭 잡고 있는 손의 모습을 담은' 모래사장 하트사진 으로 변하면서

새로 채워지는 포스팅. 여기서 스틸

'#내가 #가장 #사랑하는것... ep38 '멜로망스' 이라는 제목이 새겨진다

그것만으로도 사랑스럽고 따뜻하다!!

새콤달콤 멜로망스한 음악이 커지면서 (F.O)

- The End -